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4월 24일 (토) 제 1822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미국인은 총 버리지 못한다!

## 미 언론, “총기소유는 미국의 두통거리” 분석 보도

무고한 시민들이 또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콜로라도 볼더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난사사건으로 10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애틀랜타에서 한 사이코패스에 의해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8명이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점이다.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든 대통령도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비극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고, 규제 프로젝트는 30

년 동안이나 걸리고 있다. 지난 2013년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숨지는 초대형 총기 난사 비극이 벌어졌을 때도 총기규제 강화는 실패했다. 2년 전에도 31명의 사망자를 낳은 두 건의 대규모 총기 난사가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혐오와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했을 뿐이다.

### 헌법에 보장된 권리, 자유와 독립의 상징

미국은 세계에서 인구대비 총기보유율이 가장 높다. 보통 집집마다 '자기방아' 또는 '사냥용'으로 총 한 자루는 가지고 있다. 대머리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듯, 총 또한 미국을 대표한다.



실제 초기 이주자들이 광활한 신대륙에서 동물을 사냥하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총은 생활필수품이었다. 서부개척시대를 통해 총은 이런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켰다.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 이므로 무기를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권리를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늘 치열한 찬반논란을 불러왔고, NRA(미총기협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등 총기규제 반대세력은 이 헌법 조항을 총기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해왔다. 전미총기협회(NRA)에 의해 더욱 강력한 프로파간다로 조작되기도 했지만 총은 미국인의 자존심, 애국심, 자유주의 철학을 의미한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미국 인구 3억여 명이 소지한 민간 총기는 총 3억9300만여 정(2019년 통계)이다. 세계 인구의 4% 인 미국인이 세계 민간 총기의 42%를 보유하고 있다.

'무기를 가지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 조항은 미국 건국 초기인 1791년에 만들어졌다. '개척(원주민들 입장에서 침략과 약탈)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 미국인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총에 대한 인식은 수백 년 넘게 자리 잡아온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총기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당초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가 안에 다양한 권력이 존재하면 중앙 집중화에 따른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총기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만드는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 동안 미국에서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자살자 포함)는 4만3천 5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19명, 12분에 1명꼴로 총 때문에 죽는 셈이다.

이처럼 미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산업 등의 각종 요인이 뒤섞여서 총기규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헌법(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 뉴욕어 표지, 아시안 혐오범죄 은유 완벽

허핑턴포스트, "R. 키쿠오 존슨이 포착한 이 순간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뉴욕어 잡지의 4월 5일자 표지 작품 제목은 '지연(Delayed)'다. 뉴욕어가 공개한 새로운 표지는 미국 내 증가하는 아시안 대상 폭력에 대한 몹시 괴롭고도 가슴 아픈 은유를 담고 있다(The New Yorker Makes Subtle But Powerful Point About Anti-Asian Violence On New Cover).

일러스트 작가 R. 키쿠오 존슨이 그린 4월 5일자 뉴욕어 잡지 표지 '지연(Delayed)'은 모녀 사이인 한 여성과 어린소녀가 텅 빈 지하철 플랫폼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어린 소녀 역시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존슨은 이 표지에 관해 "어머니의 발과 (불안하게 솟아오른) 눈썹 위치를 통해 경계심과 두려움 사이에 놓인 몸짓이 드러나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존슨은 "코로나19 범 유행 당시 자행된 반아시아 증오범죄에 대한 뉴스 보도를 접하며 이번 작품

을 준비했다"며 "감정적으로 뉴스 읽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너무 많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엄마를 상상했고, 나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인 할머니와 이모에 대해 생각했다. 그림 속 어머니는 모든 여성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이길호 목사



개혁의 명맥을- 조진모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번서적/백스텔러/성구/성화책/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5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총회 임원회와 노회장연석회의에서 비대면 총회로 결정되었기에 제45회 총회 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21년 5월 18일(화) - 5월 19일(수)  
미국 동부시간 오후 7시, 미국 서부시간 오후 4시  
\*비대면 총회 일정은 추후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 하나님이 기억한 시대의 영웅(사무엘하 11:6-17)
- 총회장소** 세계소망교회 (Zoom 화상 회의)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 등록비** 총회 등록비는 미화(USD) \$50.00 입니다.  
\* 각 노회 공로,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한 \$25.00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총회에 공식 등록된 선교사들은 무료로 이번 총회에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등록 및 접수 안내**  
- 미처 등록 못한 총대들은 추가등록 연장된 4월 25일(주일)까지 등록바랍니다.  
- 온라인 등록 신청은 <https://forms.gle/gnvjLZPobGnamCmj8> 입니다.  
- 스마트폰에 QR Code Reader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옆의 이미지를 스캔하시고 바로 등록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등록 신청후 등록 현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접수된 총대들에게는 2차례의 Zoom 접속 예정연습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 송금 안내**  
등록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또는 money orde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KAPC LA  
\* 주소 : Elder. Jeyong Lee (이제용 장로)  
KAPC Los Angeles  
1131 S. Bronson Ave, #107 Los Angeles, CA 90019
- 동시 통역 및 제반 사항 안내**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 통역을 자막으로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2) 비대면 총회 일정은 추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3)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혹시라도 담당자들과 바로 연결이 안될 경우, 총준위 대표 전화 및 음성서서함인 (213) 373-4988 과 e-mail 45KAPC@gmail.com 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일정: 총 무 김성일 목사 (760) 220-3263  
등록: 서 기 이훈우 목사 (213) 924-1655  
접수: 회 계 이제용 장로 (213) 326-6582

주후 2021년 4월 19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 준비위원회**  
총회장: 조문위 목사  
서 기: 이훈우 목사  
준비위원장: 박대원 목사  
서 기: 이훈우 목사  
총 무: 김성일 목사



발행인 칼럼

### 미나리와 십자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작년의 “기생충”에 이어 올해는 “미나리”가 한층 기세를 떨치고 있다. 미국에서의 한국영화 이야기이다. 계층 간의 문제를 다룬 기생충은 그렇다고 하여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미나리가 미국인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넘어 공감을 갖게 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것은 인류의 모두의 가치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가족 안에서 모두가 경험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누구보다 가장 극심한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모든 결정이 예민한 이민의 삶에서 부부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 의견을 기어코 꺾으려 할 때 것처럼 지옥 같은 현실은 없다.

영화 미나리에서는 서로의 가치를 내세우는 부부의 서로를 향한 거친 언어와 불편한 태도가 관객의 긴장을 끌어올린다. 세대 간의 긴장도 있다. 심장이 아픈 어린 손자는 한국에서 온 할머니의 마음이 아프게 하려는 듯 까탈을 부린다. 가족이 교회에 갔지만 그 미국교회와 한국 가정의 거리감은 여전히 멀었다. 이민 땅에서 낯 보기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는 남편의 의지에 그 누가 그 어떤 할란을 퍼부를 수 있겠는가. 그가 쌓아가던 성공의 창고가 불에 타버린다. 어떻게든 딸의 집안을 도우려던 어머니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창고를 잃고 잃었던 가족을 찾았다. 불 속에서 남편이 진정으로 건지고 갔던 것은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였다. 남편이 추구하던 것은 사실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것이다. 아내도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까지 오해하고 있었다.

모든 가족 안에는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는 서로 다른 가치가 있고, 서로가 몰라주는 상처가 있다. 그렇다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자신의 상처만을 아프다고 내세우면 부부 사이와 세대 간의 골짜기는 더 깊어진다. 그러나 서로의 구원자도 될 수 있다. 갈라서기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서로를 품으며 망가진 관계를 구원하였고, 불을 낸 이후 닳을 놓은 듯 집을 짓고 정처 없이 가던 길을 막아선 손자 손녀도 할머니를 구원하였다. 할머니는 또 어떤가. 할머니는 미나리 씨앗을 한국에서 가져와 미국의 어느 강가에 심었다. 미나리는 어느 땅에서도 잡초보다 질기고 무엇보다 더 잘 자란다고 한다. 무성히 자랐다. 할머니가 심어 무성히 자란 미나리를 사위가 뽑아 손자에게 건네주며 영화는 끝이 난다. 할머니는 가족을 구원하였다.

미나리는 가족의 이야기, 이민의 이야기를 넘어 구원의 이야기로 전개되었다.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 영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초라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몇 차례 등장한다. 왜 저런 장면을 보여주는지 십자가가 창피하게 보인다. 가만. 언제 십자가가 멋졌던가. 원래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었던가. 묵묵히 길을 걷던 십자가가 영화 속의 사람들도 관객들에게도 무시당하였지만 그 십자가가 들려주는 음성은 여전히 분명했다. 부부여 서로 용서하라. 세대에 서로 사랑하라. 교회와 가정이요 서로 품으라. 미국과 이민자여 서로 감싸라. 영화 가운데 한국에서 온 미나리와 팔고다에서 온 십자가는 결코 무관하지 않게 보였다.

## 비대면 시대 선택, 온라인예배...그러나 길길 멀어

### 처치앤설스, 톰 레이너 목사에게 듣는 온라인 예배출석 감소 원인 소개

비영리 기독교 지원단체인 라이프웨이(Lifeway)의 전 대표였으며, 현재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단체인 '처치앤설스(Church Answers)'의 설립자 겸 CEO인 톰 레이너(Thom S. Rainer)는 최근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온라인 예배 참석자들이 상당히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처치 앤설스가 분석한 주요 이유를 소개했다 (Seven Reasons Your Online Worship Attendance Is Declining).

1. 호기심을 끝만한 요소는 끝났다.

예배와 현장예배 모두를 잘해낼 만한 자원이 없다.

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그룹이나 부서, 예배 등 밖에서의 모임에

그녀의 질문은 “교회에서 음악이 항상 그렇게 나쁜가요?”라는 질문이었다.

처음에 교회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시청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 시청 횟수가 늘어나며, 명목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방문하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이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지, 더 이상 온라인 예배에서 영적 활력을 얻지는 않았다. 단지 인터넷이 제공하는 아이템 중 하나일 뿐이다.



그녀의 놀라움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해했다. 그녀는 예배 사운드와 악기의 오디오 믹스를 언급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인터넷을 통해 예배 음악이 정말 나쁘게 들릴 수 있다.

6. 온라인 예배를 위한 리더십이 부족하다.

교회 지도자는 앞장서서 예배를 홍보하고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가? 아니

### 현장예배 기도하면서 온라인예배 준비 철저히 해야 질적 저하, 인력 부족, 리더 탈진 등으로 이탈 증가

2. 교회 지도자들은 대면 모임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격리 기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온라인 예배에 많은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교인이 격리를 끝내고 현장예배에 출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서도 끈끈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까? 온라인 사용자들 속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면 단지 예배 인도자인가? 아니면 소리와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많은 교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명확한 리더십이 없으면 이 사역은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며, 현장 예배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현장예배 복원에 집중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다른 말로,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낼 수 없으므로,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하고 홍보하려는 처음 노력이 시들해졌다.

5. 많은 스트리밍 예배 서비스는 질적으로는 부족하다

7. 전반적으로 다들 지쳐 있다.

4. 교회 지도자들은 온라인 예배 공동체에서 끈끈함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는 최근에 머리를 자르러 간 헤어숍에서 헤어 스타일리스트와 교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스트리밍 예배를 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투쟁과도 같다. 제스 레이너(Jess Rainer)가 최근에 말했듯 “교회 지도자들은 전에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할일 목록에 ‘분명한 온라인 전략’을 추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감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검류법 비드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학적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색(임플란트)  
- 구강외과 및  
- 보철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홍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 2종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



### 미국인은 총 버리지 못한다!

(1면에서 계속)

최근 잇따른 총격사건을 계기로 연방하원은 총기 구입 시 신원조사 확대와 공격용 고성능 무기 금지 법안을 초당적 지지를 통과시켰다. 연방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 의원도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많은 의원이 총기 소지에 우호적인 데다, 특히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신원조사 확대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속의원이 단 한 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용두사미로 끝날 개연성이 높은 이유다.

실사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총기 소지 규제는 이렇저런 이유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끝

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총기 규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보여줬다.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총기규제에 적극적이다. 대선 당시 바이든의 주요 공약사항은 ▲총기류 제조사 규제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판매 금지 ▲연방



총기법에 따른 기존 공격용 무기 소지 규제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수매 ▲총기거래 시 신원조사 등의 무화 ▲온라인 총기 판매 금지 ▲규제 관련 예산 확충 등이다.

그러나 총기규제 방안의 상당 부분이 의회를 통해 입법화 돼야 하고, 연방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는 점에서 얼마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뉴욕 표지, 아시안 혐오범죄 은유 완벽

(1면에서 계속)

작은 예술적 기교를 지닌 이야기꾼으로 이 스케치가 그 순간을 가장 잘 포착한 것 같다"라고 남겼다.

존슨이 그린 뉴욕 표지에 많은 여성들이 SNS를 통해 공감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제니한은 트위터에 "존슨이 포착한 이 순간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라고 남겼다. 다른 사람들 역시 이 지점에 동의했다:

"이 그림에서 내 마음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테니스 신발이다. 나는 식료품 점이나 은행 등 집을 나설 때면 10번에 9번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런

신발을 신는 것이다."

"표지를 보고 바로 눈물이 터져버렸다. 그림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우리는 끝 모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존슨은 미국에서 인종 문제가 흑인 대 백인이라는 이분법적 논의에 갇힌 탓에 아시아계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됐다고 본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6명의 아시아인이 숨졌지만 애틀랜타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인종적 동기가 아닌 성중독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용의자의 진술에 힘을

실었다. 뉴욕 지하철과 길거리 등에서 나이 든 아시아계 여성을 향한 무차별적 폭력이 연달아 벌어졌지만 미 당국은 이를 인종차별로 인한 중오범죄로 규정하는데 굽땀다.

존슨은 이번 표지로 인종 차별과 혐오범죄로 고통 받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자연된 정의'가 오길 희망했다.

"이 커버를 통해 누군가가 드디어 보이게 됐다고, 인지됐다고 느끼길 바랐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관한 이슈는 미국 문화의 차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왔다. 나는 사람들이 이 이미지 속에서 진실을 찾길 희망할 뿐이다."

### 비대면 시대 선택, 온라인예배..

(2면에서 계속)

팬데믹 시대, 비대면 사회에서 온라인 예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각 교회 형편에 따라 적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개념이 매우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어색함은 사라지고 어느덧 일상이 됐다.

온라인 예배는 비대면 사회에 최선의 대안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온라인 세계

는 여전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선교지'라는 심정으로, 더 나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며, 온라인 예배를



사역의 상승효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단,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고, 현장에 배가 빠른 시일에 복원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잊지 않아야 한다.

## 접속(接續)의 시대에 접촉(接觸)의 은혜를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앞에 와계시고, 그 문을 열어줄 때 만남을 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만남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조선 시대 양반집 문 앞에서 소리치는 '이리 오너라'부터 시작해 펜으로 정성들여 쓴 마음을 전달하는 펜팔 시대와 유선전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아날로그방식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똑똑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온라인을 통한 '접속시대'가 되었다. 즉, 땀을 흘리며 걸어가서 만나든지, 아름다운 글씨체로 편지를 쓰기 위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손가락 한 번의 터치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접속시대에 접어들었다. 직접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는 접촉의 시대를 비웃으며 등장한 접속시대에 들어서자 하다못해 툭툭 하나씩 돌리던 텔레비전의 채널도 터치 한번이나 음성인식으로 쉽게 다른 채널과의 만남을 열어주게 되었다.

태초에 에덴동산의 첫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마도 하늘을 바라다보지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당신을 바라보지만 하면 창조주이신 그 분은 어느 때든 순간처럼 첫 사람 앞에 와서 대화에 응하셨고 첫 사람 아담은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그 분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상상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그 분과 첫 인간의 만남은 편안하고 수월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더니 그 분과 사람 사이에는 도무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죄는 때로는 사슬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되어 가로막았고 둘 사이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설치되어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

원래 인간이 그 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인격적이며 피지컬적인 실제 접촉(接觸)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죄가 그 접촉을 방해했고, 화질과 음질이 떨어지고 전자파 방해로 연결이 끊어지는 불안정한 만남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시대는 virtual, 가상의 만남시대가 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접속시대가 되었다.

접촉이 실제적 만남이라면 접속은 가상의 만남이다. 접속은 기계적 만남이라면 접속은 실제적 만남이다. 동부 버지니아비치에 사는 15개월 된 손녀 딸과 하루에 한번은 영상통화를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지만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이 만남의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러다가 두 주 전, 시간을 내어 버지니아 비치를 방문해 손녀딸과 직접 만나 일 주일을 함께 지냈다. 온라인 '접속'으로 만나다가 품에 안고 불을 비비는 신체적 '접촉'의 만남은 순

간순간이 얼마나 따뜻한 감동이었는지... '달다', '감동하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 촉(觸)의 의미를 몸으로 체험한 일주일이었다.

LA로 돌아와 다시 영상접속으로 손녀를 만나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다. 화면에 뽀뽀하러 오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보이는데 만져지지 않는 만남을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서럽고 안타까운 울음이 며칠을 가는 것이었다. 아이는 접속되어 나타난 영상이 아니라 품에 안기던 접촉이 느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그 뜨거운 정오의 햇볕 아래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그 분이 말을 걸었다. 물 좀 달라고. 예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고 딱딱한 반응을 보이는 여인에게 그 분은 대화의 물꼬를 터나갔다. 물 좀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분은 역사 속 야곱의 우물이야기를 지나 여인의 개인 가정사를 건드렸고 마침내 영성의 만남인 예배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 분은 어딘가에 접속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여인과의 접촉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분과의 전인적(全人的) 접촉인 예배를 가르쳐주시고, 나아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접촉해야 할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신나게 감당하게 하셨다.

접속의 시대이다. 나만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상공간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시대이다. 이메일을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등 접속의 방법과 효능이 더욱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는 생명의 만남이어야 할 예배조차 접속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기독교신앙은 접속이 아니라 접촉으로 시작되었다. 실제적이고 전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희열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 죄로 인해 단절된 그 분과의 연결은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분의 구원계획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분이 결정한 방법은 '인격적 만남'이라는 방법이었다. 단단적 결정이나 기계적 자동화를 통해 접속되는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 방법이 성육신(incarnation)이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그 분의 방법은 결정의지를 인간에게 제공하신 인격적 방법이었다.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과 드디어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었다.

온라인 접속의 시대이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와 직접 만나기 원하신다. 접속의 시대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접속의 주파수가 흔들리고 있다. 접속 상태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 분과의 실제 접촉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그 분의 음성에 귀가 열리고, 그 분의 눈빛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 분의 터치에 온몸이 따스해지는 놀라운 접촉의 은혜, 그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djlee7777@gmail.com

##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학,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 출 처 : jp@midwest.edu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최면에 빠진 어린아이에게 동전을 주면서 이것이 비스킷이라는 암시를 주는 순간에 그 아이는 아주 쉽게 비스킷을 부

르프리트 동전을 구부렸다고 한다. 긍정적인 상상의 극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정적인 상상도 실제로 나타난다.

발 주변에 원을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간헐히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는 암시를 주는 순간에 그의 발은 짝짝할 수도 없게 굳어버린다고 한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상상에는 무한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조종사 조지 홀 대령(1930-2014)은 비행기가 격추되어 포로로 7년을 독방에 갇혀 있었다. 겨우 양팔을 뻗을 정도의 좁은 곳에서 운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상상 골프를 즐겼다. 1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싱그러운 잔디와 나무, 바람의 방향까지 심지어 새가 지저귀는 구체적인 상상을 하면서 18홀을 하루에 4시간씩 무려 7년을 이어갔다. 비록 체중은 반으로 줄고 온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석방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자유의 몸이 되어 PGA 골프 투어 프로대회에 출전하여 76

타를 쳤다고 한다. 상상의 노력이 현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하버드대학에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슛 연습을 하게 했다. 첫 그룹은 별 방법 없이 매일 매일 슛 연습만을 하도록 했고, 둘째 그룹들에게는 매일 오후에 체육관에서 한 시간씩 연습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들에게는 매일 상상으로 슛하는 연습을 하도록 했다. 그 상상 속에서 기본적인 폼과 골인하는 명중률을 가정한 상상력을 요구했다.

한 달 후에 슛 테스트를 시작했다. 결과는 첫째 그룹의 명중률은 39%에서 37% 하락했고, 둘째 그룹은 39%에서 41%로 상승을 했다. 그런데 상상팀의 결과는 39%에서 무려 42.5%로 높아졌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상상은 심리학에서는 자기 암시에 속한다. 상상은 무에서 유라는 시뮬레이션 효과를 통

해서 잠재력을 고조시킨다. 고조된 잠재력은 자존감을 일깨움과 동시에 확신과 용기를 수반하게 한다. 그래서 허공을 새처럼 날아다니는 상상의 날개가 실제로 비행기를 만들게 해준 라이트 형제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난로 위에서 뜨거운 증기의 압력으로 상상의 날개를 달았던 조지 스티븐슨은 증기 기관차를 만들었다. 실로 상상의 날개는 구체적인 현실을 만들어 낸다.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노동을 하면서 10번씩 품삯에 속임을 당해 빈털털이가 되었다. 야곱은 아내만 해도 4명에 줄줄이 달린 자녀들을 부양하기에는 가장으로서 무능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야곱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유능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라반의 양들 중에 얼룩덜룩한 무리로 태어나는 양은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는 요청을 허락받았다. 그

날부터 야곱은 단순한 상상의 날개를 구체적으로 실현화시켰다. 양들이 물 마시는 통결에 얼룩이 나무들을 줄을 세웠다. 양들의 상상의 날개를 현실로 바꾸는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꺾임 벗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흥나무들을 세워서 양들을 의식화 교육을 받게 했고, 그 결과 얼룩진 양새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와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 상상의 날개가 실제적인 재벌을 만들어 주었다(창30:32-).

히브리서 저자는 "상상(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했다. 코비드로 갇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드높은 현실의 창공을 신나게 날아보자!

kykim47@gmail.com

## 푸/른/초/장

이길호 목사  
(뉴욕성심장로교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약 70여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들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천막에 살면서 그들의 인생은 순례자임을 명심했습니다.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저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왔지만 더 좋은 분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저들이 순례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걷는 발걸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투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자기들이 살아갈 집도 없었지만 먼저 제단을 세웠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자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우선적으로 priority no.1으로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겠습니다.

I. 주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투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와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의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자세한 부분과 성전 건축의 전체적인 감독을 위하여-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맡아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나이에 봉사했습니다. 때로는 30세였고, 때로는 25세인데, 본문에는 20세였습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의 숫자는 적고 사역해야 할 일은 많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의 숫자는 적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들 생각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에도 가능

여호와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저들은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 규례대로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합당하게 드러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러야 합니다.

2) 열정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도 찬양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원망, 불평,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송하면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던 이전 성전에 비하여 "너무 보잘 것 없다"면서, 과거의 향수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가라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속 4: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투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이 일꾼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 이 성전은 매우 작고도, 보잘 것 없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말기지는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일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대한 감사가 없는 마음의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포로 석방이라는 큰 은혜와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에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의 말은 슬픔의 소리이며, 이러한 비통함은 낙심의 씨앗이며, 그들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욱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낙심하며, 교회의 통일성이 깨어 집니다. 이들은 우리 세대와 지금세대를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2) 감사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3) 신앙 공동체의 통일성을 든든히 세워 나가면서 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kh10206@gmail.com

##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에스라 3장 8-13절



성경의 엄격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높은 수준의 조직과 구조, 조정,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땅을 경작했습니다. 채소를 경작했고, 동산을 관리도 했습니다. 일(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의 한 부분입니다. 창조의 규례(creational ordinances)는 예배(안식), 결혼(가정), 노동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들의 일은 밤낮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천국에서의 일은 영광스런 일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고, 속도도 느릴 수도 있지만 함께 참고, 기다리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II.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의 일을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10-11절, "건축자가 여호와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성전 공사를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고, 나팔과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포로를 석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시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능력 있게 일을 하게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특징은 1)성경의 규례대로 찬양과 예배입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들의 찬송과 예배는 성경

III. 주의 일을 할 때에 공동체의 통일성을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합성을 지르니"

성전을 재건하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동시에 향수에 젖어 슬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재건되어진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자기들이 섬겼



평안과 단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한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였다.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교회를 다니려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였다. 신앙생활에 대해 이런 목적과 해답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대답을 들으면서 한편 인생의 연약함이 느껴졌다. 태중에서부터 지을 받고 함께 붙어살아온 자기 마음 하나조차 제어하기 어려운 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연세가 칠팔십을 지나서서 인생에 일체의 법을 깨달았을 법한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 없이, 마음 편하게 잠도 잘잘 수 있고, 그렇죠?' 그저 마음에 평화를 주는 통로로, 잠 한번 달게 자봤으면 하는 마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마음 하나 제대로 먹기 어려운 게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 나 자신도 아직 젊지만 마음과 판단으로 말하고, 회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되새겨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저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하나 잘 다스리는 것' 그것도

한다면, 나무를 존재하게 만드는 근본이 되는 뿌리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열매를 드러내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참다운 뿌리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세상에서의 삶, 더 나아가 목회의 본질까지, 뿌리와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인가? 오직 한분 하나님이다. 한분 하나님 외에는, 창조세계 안에서 인생이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불변의 본질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은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 모든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삶이 연약해서, 풍랑이는 바다위에 짐과 같은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은 모습이어도, 근본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시면, 그의 인생은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넉넉히 이기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평탄한 세상을 살고 원하고픈 모든 열매를 다 얻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지 못하면, 거센 비바람에 뿌리째 뽑혀 길가에 드러누운 나무들 모양 비참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갈 둘만 있어도 콩가루 가정 이 되어 배다른 형제가 내어쫓김을 당하고 여인들 간의 거친 혈투가 이어졌는데, 야곱의 집안은 어떠했는가?

결국, 딸은 세상과 어울려 강간을 당하여 집안은 몰살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아들들은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로 편을 나눠 서로를 해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열매를 구하기만 했지, 그 뿌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당연한 결과였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잇대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한순간에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훗날 그가 고백하는 '협약한 세월'로 표현되어지는 자기 고백이 이것을 표방한다 하겠다.

야곱의 회복은 언제 나타나는가? 세겜의 고통스런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다. 베엘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전히 자식들 간의 갈등과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그의 삶을 흔들 놓았음에도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림으로, 흔들림 없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이다. 삶에 대해서도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회복이 시작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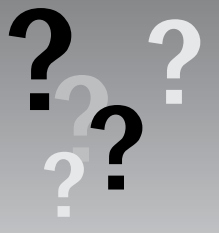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위해 세우신 법이요 그가 정하신 본질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본질은 돌고 돌아 설 명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의 운전함을 맞보고, 마침내 인생의 본(根本)이 되시는 하나님께 잇대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열매를 원한다. 그러나 근본과 본질을 찾고 구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공허(Nothing)한 인생을 살아갈 따름이다.

보이는 교회에 뿌리내림

회복의 도구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열매의 풍성함을 맛보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주의 전에 잘 심기위진 백향목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생활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는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이다. 주의 전에 성도들이 만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미국에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고 나의 전문성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공부에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성공을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Joseph Hong

**A:**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꿈을 가지고 그래픽디자이너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는 형제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문성의 직업과 기술을 가지려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Breakthrough(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제 둘째 아들도 그래픽을 전공해 지금 미국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늘 프로젝트를 위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No pain no gain(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류현진은 다저스에서 7년간 피쳐로 뛰다가 FA 자격을 얻어 4년간 8,000만불 연봉을 받고 토론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구선수로 성공했고 출세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지혜로운 아내까지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행운아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적가치인 돈과 명예는 얻어 세상적인 성공은 했으나 안타깝게도 영적인 성공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성공도 해야 하지만 먼저 영적인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그리스도와와의 접촉(contact)입니다.

영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남성과 여성들은 결혼 조건으로 ABCDEF를 본다고 합니다. Age(나이) Background(개인과 집안 직장, 배경) character(성격) Degree(학위) Economic(경제) Face(인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F에 다른 F를 하나 더 붙입니다. Faith,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리스천에게는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value)요 최우선권(first priority)입니다. 그래서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foreign policy' 즉 외교정책 전문잡지가 2040년 세계를 이끌 강대국 네 개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 나라가 영어로 'GUSA'인데 Germany, United State of America, Turkey, South Korea입니다. 2040년에는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만주까지 차지할 것을 내다보면서 한국인의 national character, 5가지 때문에 한국은 장차 4대 강국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1)한국인의 국민성 2)교육열 3)한국의 기술입니다. IT산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원자력 기술 때문입니다 4)전세계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 5)한국의 개신교 교회(1,200만)의 신앙열정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위대함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지만 먼저 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영적성공은 1)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2)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 영적 성공입니다. 이 세상 성공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영적 성공은 현재에서 저 천국 영원세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미국에서 영적 성공을 바탕으로 그래픽디자이너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신앙과 삶의 뿌리와 열매

- 세상, 교회와 예배

나를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별히 이민생활의 고단한 인생의 바다에서 얼마나 '평안과 단잠'이 갈급했으면 그랬을 까 생각하면 아스라한 마음이 든다. 그러한 대답에 '물론, 예수 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그저 마음하나 다스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강수를 마시고 영혼을 풍성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드렸다. 신앙생활에 마음의 평안하고, 단잠 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나무에 달린 여러 가지 중요한 열매중의 하나일 뿐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열매와 뿌리(根本)

농부가 열매를 구하고 찾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의 줄기 가치를 튼튼하게 하는 뿌리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쓴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얻고자 뿌리에 좋은 영양분이 될 만한 거름을 공급하고 땅을 기경하며 열매를 맺을 힘을 북돋아준다. 그렇게 뿌리가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깊이 땅에 뿌리박히면 좋고 튼실한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되어 있다. 이때, 열매를 가리켜 보여지는 것을 현상이라

좋은 집, 좋은 차, 자식출세에 무병장수할 것 같은 건강을 얻었으면, 풍성한 열매로 만족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인생일까? 그렇지 않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덕담 정도는 들을지 몰라도 그저 유한한 열매를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삶을 판단하기에 앞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인생의 근본뿌리가 어디에 잇대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뿌리가 근본 진액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그 열매들의 풍성함은 그저 잠깐의 즐거움일 뿐이기 때문이다.

협약한 세상, 유한한 인생

야곱의 인생을 보라. 젊은 시절 그는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진 인생을 살았다.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경쟁적인 성향을 가졌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으로 넘겨받았다.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권을 취하였다. 원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결과 아내가 네 명이나 되었고 아들도 열둘을 가진 가장이 되었다. 게다가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삼촌과의 경쟁에 이기면서, 재산도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되었다. 겉으로는 보편 당연히 행복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네 명의 여자가 한 집안에서 뒤섞여있음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하였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도 사

고, 마침내 요셉이라는 잃어버린 아들을 통한 노년의 복을 보았으며, 속죄이던 아들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이루는 인물들이 되었다. 가정의 영적가장인 아버지의 든든한 신앙의 뿌리내림이 줄기 가지와 같은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모습을 '예배'가운데 확인하게 된다. 야곱의 인생에 벨엘,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과 자기 영혼이 연결됨을 느꼈고, 마침내 죄악가운데 요동치는, 연못위의 부초같이 바람 따라 움직이던 인생의 모습이 제대로 정형미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뿌리내림 영원한 반석이라면, 예배는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자라가도록 하는 회복의 통로이며, 도구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진액이 흘러나온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로 물과 영양을 흡수하므로 잎이 푸르고 열매가 창대하듯이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회복과 축복을 맞볼 수 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어낸 종교이야기가

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인 중에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며, 그 결과 교회를 경솔히 여기고 교회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 마침내 복된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본다. 교회와 세상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도 주의 전에 잘 심겨진 감람나무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교회, 아버지 집에 심기움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도의 제일 소원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과 쓰임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성전을 귀히 여기며, 성전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성전에 나아와야 한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성전생활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한가운데 항상 교회가 존재한다. 이것이 정

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 그들의 열매를 하나님이 책 임져주실 것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형통하게 된다. 이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도 교회에 나와야 한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오면, 모든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 온갖 죄악과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씩이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으며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거친 이민생활 가운데 밤이 깊어도,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단잠도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도 좋은 열매, 성공의 열매를 거두어 보고자, 생명을 굶어먹으면서 일한다. 다시 잠잠해 보아야 한다. 나의 삶의 근본, 뿌리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최고의 답이 있다.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감으로 최고의 열매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7,8에 “착각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하나님을 무시하고!-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은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메시지 성경). 풍을 심으면 풍이 나고 팔을 심으면 팔이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심은 대로 나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다고 인정하시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소개된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다. 금한 달란트의 가치는 약 15억 원 정도가 되니 다섯 달란트면 75억, 두 달란트도 30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 많은 이문을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큰일을 행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기준처럼 계산되지 않는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충성(순종) 여부다. 하나님의 칭찬도 충성 여하로 가름되었다.

따라서 죄도 그러할 것이다.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다. 살인이나 강도는 큰 죄이지만 바늘도둑은 작은 죄라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작은 죄가 자라서 큰 죄가 된다.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욕심으로 잉태된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러 되는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는 하찮은 욕을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결과를 살피게 된다. 노년에 이르도록 몸으로 하는 육체노동은 거의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조금만 과한 일을 해도 금방 녹초가 되어버린다. 밥맛까지 달아날 정도다. 그래서 규칙을 정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전에는 성경을 쓰고 묵상하며 내 본분에 따른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오늘 특별하지도 않은데 이 규칙을 켜. 특별히 바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 어슬렁거렸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산통을 보이던 염소가 새끼를 낳았다. 문외한인 내가 봐도 난산이었다. 첫 새끼는 몇 번 애달프게 어미를 부르다 죽고 말았다. 지친 어미의 배는 여전히 불렀으나 힘을 쓰지 못해 사람의 도움으로 두 마리를 더 낳았는데 처음에는 활발한 듯 하더니 서너 시간이 지난 조금 전엔 별 가망이 없어 보였다. 이미 뒤늦은 깨달음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오전 시간에는 어찌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님께 들으신 것이다. 불충이며 불순종이다. 오늘 아침에 이 불충을 심었으니 허망한 것을 거둬야 당연했다. 혹자는 그렇지 모른다. 실마! 그럴라고? 그러나 나는 안다. 나의 불충으로 인해 애꿎은 염소가 희생된 것이다. 그래서 안간힘을 몰아쉬다 끝내 그마저 멈춰버린 새끼들에게 미안하다. 이미 뱃속에서의 153일이 덧없이 스러져 버렸다.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6,7)고 말씀하신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로도 나의 불충은 허망 될 결과를 초래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낫다’는 새뮤얼 존슨의 말과는 정반대가 되어 버린 하루였다.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질타할 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사랑이란 단어는 사랑이라 써놓고 희생이라 읽는다고 한다.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희생이 필수라는 말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에도 동일하다. 무엇을 거두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라!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청년들이 신앙을 떠날 때...

미국 청소년 사역자 마이크 맥게리 목사가 제자들이 신앙을 떠날 때 청소년 사역자가 명심해야 할 4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15년간 청소년 사역을 해온 맥게리 매사추세츠주 사우스쇼어침례교회 청년부 목사는 최근 미국 북을연합(TGC)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신앙을 떠날 때 청소년 사역자가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란 글을 기고했다. 맥게리 목사는 “누구의 믿음이 견고하고, 누구의 믿음이 사라질 진 아무도 모른다”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만큼 청소년 사역자들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사역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지침은 ‘애통을 그칠 것’이다. 청소년 사역자는 학생들을 예수에게 이끄는 길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삼은 사람이다. 따라서 돌보던 학생들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면 이들은 깊은 좌절을 맛본다. 맥게리 목사는 “예수도 사랑하던 제자들이 신앙을 잃는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지만, 유다처럼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다”며 “학생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데 애통해하되 자기연민이나 원한을 품는 방식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신 “여러분의 슬픔을 신앙의 길을 떠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연료로 활용해 이들이 속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주님의 계획을 믿을 것’과 ‘포기하지 말 것’이다. 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달린 일하기에 당신이 해운 사역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당신이 해운 목회 사역을 돌아보기보단 신앙을 떠난 학생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목양하는 학생의 구세주가 아니며 이들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 또한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신앙을 의심하는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혜를 간구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제언은 ‘긴 호흡으로 사역을 바라볼 것’이다. 그는 “청소년 사역의 목표는 10대 기독교인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10대 때부터 믿음을 길러온 성인 제자를 배출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1000가지 방법으로 일하는 분이다. 때때로 일부 학생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청소년 사역이란 당신의 소명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했다.

코란스티커 뺐다고 ‘신성모독’ ...교수형 위기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간호사 두 명이 청소년 코란 스티커를 떼 신성모독죄 위반으로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신성모독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12일 더선,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동부 파이살라바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메리암 탈과 누쉬 우루즈는 지난 8일 수간호사의 사물함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독교인인 두 사람은 무슬림인 수간호사의 사물함을 깨끗이 청소하며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이 적힌 스티커도 펜으로 긁어 떼어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알려지며 병원 내 무슬림 직원들과 외부인이 합세해 폭동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신성 모독법’을 위반했기에 교수형에 처하라는 요구였다. 병동에 있던 소년인 무함마드 와카스는 스티커를 떼 행위에 분노해 메리암을 칼로 죽이려 했다가 팔에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에서 탈과 우루즈는 경찰 개입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성모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며 탈과 우루즈를 15일 동안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형법 상 신성모독법 적용은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형법 295조 B항에 ‘코란을 모독하는 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C항에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신성모독법이 기독교인 등 소수집단을 위협하고 개인적 원한을 해소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기독교 인권운동가 살렘 이크발은 교황청 공식 기관지인 피데스에 “신성모독죄의 경우 부당하게 고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강제로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주교회의 카시프 이슬람 국가정의 평화위원회 프로그램 담당자는 “기독교 여성에 대한 허위 고발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깊은 감수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도록 가르친다”며 “젊은 기독교인 간호사들이 (의도적으로)코란 구절이 담긴 스티커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에 파키스탄은 힌두교나 기독교 등 소수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무슬림 군중 1500여 명이 100년 이상 된 힌두교 사찰을 부수고 불태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국 교회·선교사, 미얀마 카렌족 돕기

태국의 교회와 선교사가 미얀마 군부세력의 공격과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돕기에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 오영철 선교사는 14일 메시지를 통해 “미얀마 카렌자치주의 이푸타캅에 2500여명, 메부타캅에 3000명 가까운 카렌

난민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군부 공격이 두려워 밤에는 밀림에서 보낸다”며 “구호물품, 국제사회의 관심과 함께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 선교사는 1995년부터 태국 치앙마이 실로 암신학교에서 목회자와 학생을 가르치며 태국 카렌침례총회(TKBC)와 함께 카렌족 전문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 선교사에 따르면 미얀마 소수민족 중 최대부족인 카렌족은 49년 1월 독립을 선언하며 미얀마 중앙정부와 대치했다. 카렌자치정부라 할 수 있는 카렌자치주가 2012년 중앙정부와 휴전을 맺었지만 전투는 끊이지 않았다. 84년부터 카렌 난민은 태국 국경과 인접한 살라완 강가에 형성된 난민촌에서 생활하거나 태국으로 탈출했다. 미얀마에 약 400만명, 태국에 약 50만명 정도가 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뒤엔 카렌족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후 미얀마 군부의 미사일, 폭탄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난민 중 일부는 살라완강을 건너 태국 매혹 손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태국 정부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난민 지원을 고민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당장 실행에 옮기기엔 어려움이 많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태국 교회와 선교사, 성도들이 카렌 난민을 돕고 있다.

TKBC, 태국 내 카렌족들의 모임인 KTG, 카렌 난민을 위한 기독교단체 더보더컨소시엄을 포함한 5개 단체가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담요, 텐트, 약품을 모으고 있다.

구호물품은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봉사단체 프리버마레인지(FBR)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FBR은 미 육군 장교 출신으로 선교사가정에서 자란 데이비드 유벡크가 설립한 단체다. 5명씩 100여개 팀이 구호물품 공급 외에 성경 공부,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

美, 대북전단법 압박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권 권리: 한반도 인권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톰 랜토스 위원회는 “일부 인사들은 이 법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인권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자유민주주의’ 대목에서 자유를 삭제한 일, 역사왜곡금지법 제정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한 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문재인정부가 KBS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대북전단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국민일보의 질의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국제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

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북한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북전단법 제정도 압박을 우회적으로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북전단법에 대해 국내외 미국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 약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성인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

미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성인은 나이 제한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 6개 주(州)가 이날부터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와 수도 워싱턴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성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철폐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4일 뉴욕에서 의료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접종한 것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부터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행했다.

이후 화이자와 모더나 등 미국 정부의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각 주 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9일이 되면 미국 성인의 최소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소가 늘어나고, 미국인 90%가 거주지에서 8km 이내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하루에 평균 320만 회 분량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한 달 전인 250만 회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4월 18일 현재 미국에서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성인의 수는 1억31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50%에 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수도 8430만 명에 달한다.

NYT는 이 같은 속도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2억 회 분량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현재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은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오는 23일 얀센 백신 접종 재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제한적 조건에서 접종을 허용하거나, 접종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방식 등을 예측했다.



무엇을 믿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경의 진리가 있다. 이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시금석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인 개인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적 행위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심적 행위를 동시에 동반한다. 소위 머리와 마음이 조화된 믿음을 뜻한다.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한 교인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영적 자각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도 바뀌어도 이런 신앙의 기본적 요소는 항상 요구되어왔다.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 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적 놀라운 영적 경험이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중생한 성도는 개인에 따라 미숙하거나 성숙한 단계에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깨닫고 수용한 진리에 대한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교회의 설교와 신앙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진리와 구체적 적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때 가르치는 자는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 세워진 전통에 의해 형성된 교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믿는 신념체계를 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답, 즉 일련의 명제들이 이미 분명하게 주어졌다.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과 교리를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각 성도의 신앙이 자라난다.

12신조

이런 관점에서 서구 선교사에 의해 복음의 씨앗으로 성장한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진리의 객관성보다 성도의 주관적 신앙을 강조한 한국적 신앙의 원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피선교지였던 조선교회가 조속한 시일에 힘쓰는 교회를 본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초기부터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위탁으로 드러나는 친

밀한 관계는 강조되었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상대적으로 중요시 하지 않는 풍토가 형성되었다. 무조건 믿는 것을 더욱 숭고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확신이 공유된 것이다.

먼저 한국장로교회를 살펴보자. 1907년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긴 해였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때 평양대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사에서 대단히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1902년에 설립된 평양신학교가 1907년에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같은 해에 최초로 독노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주한 선교사들은 9월 17일 소집된 노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건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2신조’를 표준으로 삼는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의 진리를 밝힌 문서이기에 교회와 신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할 교리체계로 인정하고 채용한다는 것이다. 즉, ‘12신조’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더욱 간단히 요약한 문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간단한 교리

때로는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간단히 요약된 내용이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다. 특히 처음 어떤 사실을 접하고 이해할 때 더욱 그렇다. ‘12신조’의 역할이 그러하였다. 아직 제대로 아지 않음도 견지 못하던 1907년 한국교

을 통해 교리적 진리를 밝히는 것보다 영적 불모지에 복음을 제대로 심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자들이다. 이미 미국장로교회는 초기부터 전통적 교리를 강조하는 편과 부흥운동을 중심하는 다른 편이 대립하며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온 바 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복음주의 전통에 있었다. 그러므로 ‘12신조’를 채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장로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전통적으로 매우 간단한 교리를 기초로 형성되었다. 감리교회의 경우 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1930년 정경옥 목사가 기록한 ‘기독교조선감리회 교리적 선언’은 ‘12신조’에 비해서 매우 간결하다. 그 결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머리보다 가슴을 강조하는 신

한 관심을 등한시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생을 체험한 성도는 계속 자라나야 한다. 신앙인은 평생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어린 아이와 성인이 먹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차이 때문이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이다. 매우 간단한 교리와 성경에 관해 상투적인 내용만 이해하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아이를 벗어나 성장한 성숙한 성도들은 반성적으로 자신을 반영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 신앙인으로 자신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현재 자신이 스스로 세운 신앙 체계와 내용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시로 주어진 말씀에 담겨진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행위를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을 뜻하는 자신의 주관적 신앙범주 안으로 수용할 때 영적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3)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19) - 자율적 신앙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자율적 신앙

성숙한 신앙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요약한 교리의 통제를 받는다. 부모의 책망과 인정을 의식하던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된다. 철이 들면서 달리지는 것은, 부모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교리를 맹목적으로 고집하거나 기독교적 관습을 따르는 태도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신앙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따르려는 열정을 되찾는 자율적 태도를 지니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향후 장로교회의 신학적 바탕을 이루게 된 ‘12신조’이다.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포함)를 표준문서로 채택하여온 것을 염두

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길고 어려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대신하여, 쉬우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12문서’를 채택한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초기에 ‘12신조’라는 간단한 교리를 통해 신앙이 자라게 한 뒤 마땅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교리체계보다 뜨거운 신앙의

요약된 12신조로 출발한 한국교회, 성장할 교리체계 후속조치 아쉬움  
하나님 말씀 통제받고 그 진리 알아가는 기쁨 가질 때 자아의식 건장

에 둔다면, 이를 대신하여 매우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12신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1907년 노회에서 채택된 ‘12신조’는 한국 선교사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인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1904년에 조직된 인도장로교회에서 먼저 채택된 문서를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 당시 인도 선교사들도 ‘12신조’의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인도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려 하였다.

한국 선교사들도 이 뜻에 동의하였기에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도장로교회와 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 서문에 유사하게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웨스트민스

배려한 결과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인도 선교사들이 간단한 교리를 제시하였던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깨달을 때 ‘12신조’ 채택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한다. 선교사들은 ‘12신조’가 인도교회와 한국교회는 물론 아시아에 뿌리를 내리는 장로교회의 신조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들이 교만하여 동양인의 지적 능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반대하고 어려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그들이 간단한 교리를 선호한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 당시 미국 복음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복잡한 신학논쟁보다 간단한 형태의 신앙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신학자들이 아니었다. 교리논쟁과 변증

열정을 강조하는 전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포괄적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숙하는 신앙인

신앙은 궁극적으로 머리보다 가슴을 중시한다. 교리와 성경을 통달하여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여도 그 진리를 제공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지적 유희에 그치고 말게 된다. 신앙의 목적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인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신앙적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신앙을 굳세게 지켜갈 수 있다. 그러나 가슴만 중시하고 머리에 대

자율적이라는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규제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7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한 인간의 자율성, 즉 창조적 지성의 힘을 믿고 급진적 개인주의로 전환을 시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앙인은 자신과 자신의 뜻을 축으로 삼고 공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 중생한 성도는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중심의 삶이 구축되기까지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슴의 신앙을 강조하여왔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위해 각성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더욱 그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지니게 될 때 건장한 자아의식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때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covenantcho@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CA region.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리더십 코멘터리 (133)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부활절 새로운 리더십을 소망한다

글로벌시대의 혁신리더

지금 우리 모두는 혁신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한 분야의 리더가 주도하는 시대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존재하지만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가 절대 부족한 시대이다. 어떤 면에서는 리더십의 부재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부상태처럼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처럼 제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 확립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을 의지할 수는 없다.

요즘 회자되는 민주적 리더십이란 모든 사람들의 뜻을 잘 읽어서 그것을 집약하고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남다르게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한 사유체계를 리더십의 언어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난제가 가득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리더십을 제안한다.

###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을 가진 리더십

리더는 질문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리더는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져 감동의 느낌을 찾아가게 만드는 질문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한다. 대답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고유함은 대답하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 누구도 던지지 않은 전대미문

하는 로고스가 차지한다. 에토스가 설득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리더의 인격과 품격에서 나오는 신뢰감 때문이다.

사람은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인격에 감동한다. 세상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로고스보다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파토스가 이끌어간다. 리더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가 가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팀원을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은 감성적 설득력으로 감동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득력을 지니려면 리더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

###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리더십

리더는 가능성의 세계를 상상하는 상상력 전문가이다. 리더의 상상력은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상이나 허상, 망상이나 몽상과는 다르다. 리더의 상상력의 원천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불만족스러움, 불안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연상하는 과정이다.

생각과 아이디어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세상 속에서 무수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비로소 혁신이 창조된다. 리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실천적 지혜가 생기지 않고 실천적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조직 문화나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리더는 책상에 앉아 지시와 명령만 내릴 것이

## 민주화 다원화 시대 이끌 리더십 만들어가는 문화정착시켜야 하나님으로 위대한 일 기대하고 하나님 위해 위대한 일 시도

자기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리더십,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려 한다. 변화된 리더는 시대철학에 맞게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시대의 혁신리더는 민주화와 다원화 시대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혁신리더십의 사유체계

4차 산업혁명의 급물결과 디지털 혁신이 세상의 변화를 휩쓸고 있다. 리더는 급변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영적 영향력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를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먹구름을 보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리더는 먹구름 뒤에 존재하는 번개같은 태양을 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감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위기와 난국에 처해 진퇴양난의 곤란함을 겪을 때도 리더는 과감한 결단과 결연한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리더는 시대의

의 새로운 제안을 말하는 능력이다.

제안을 말하고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을 가진 리더가 필요한 시대이다. 인공지능도 질문하지만 인간처럼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며 제안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따라 질문하고 답러닝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질문을 생성한다. 인공지능의 질문과 인간의 질문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예측할 수 없는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우발적 질문이다.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면 사람들의 머리가 굳어져 버리지만 물음표를 던져 질문하고 문제를 던지면 사람들은 그 때부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 감동을 통해 행동으로 이끄는 리더십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대부분의 리더는 자신의 생각이나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치중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설득의 60%는 인간적 신뢰감을 뜻하는 에토스가 좌우하고, 30%는 감성적 설득력을 지칭하는 파토스, 그리고 나머지 10%는 논리적 설득력을 의미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시행착오나 실패경험을 자산화 시켜 조직의 암묵적 지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실용과 청렴의 리더십 정신

싱가포르의 전 총리였던 리콴유는 사후에 자신의 집을 허물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유언은 자신의 집 때문에 주변개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의 실용과 청렴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을 버린 깨끗한 도덕성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수께서는 밀 이삭을 드시면서 머리 돌 곳이 없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세상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지금은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거짓 지도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불붙고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배출해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미전교회 협력)

## 이혼가정 자녀회복(2)

질문: “엄마, 아빠가 따로 살기 시작한 때부터 하루하루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주말이면 아빠가 사는 곳으로, 주중엔 엄마와 함께... 어떤 때는 운동복이나 숙제를 아빠 집에 두고 와서 다시 간 적도 있어요. 엄마와 있을 때면 아빠가 혼자 자서 꾸그리고 슬픔을 드시는 모습이 떠오르지요. 아빠 집에 있을 때는 잘 먹지 않는 엄마가 염려스러워요. 내가 돌아오면 양쪽에서 살 텐데 생각하다가도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어 울고 싶어지는 거예요.”

### 내가 돌아오면... 4가지 관계유형 알고 대처

답변: 자녀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이 그들이 아는 가장 의미 깊은 기억의 세계이며 전부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녀들이 피해질 수는 없고 부모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 자녀가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이나 별거한 배우자간의 자녀양육을 위한 관계유형에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며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양육에 의논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부정적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자녀양육에 상대방의 어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갖는 권리를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받고 화난 감정이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상대방의 부모로서의 자녀양육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자녀들은 중간에 끼여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관계이고요,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말다툼뿐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계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자녀들이 자랄 경우 한쪽 부모만 택하도록 강요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모 중 한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미 헤어졌을지라도 자녀들의 좀 더 나은 양육을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결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줄 수 있는 친지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따로 살게 됨에 따라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경이야기로 마음 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너와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기도 받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마 19:13,14)라고 말씀하셨단다. 어쩌면 너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슬픈 부모님의 이혼을 그냥하게 두셨을까?’ 라는 의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너희와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단다. 힘들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도록 하자.”

hyojungyoo2@yahoo.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3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레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6-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0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운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주일 3부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턴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합송: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인간특별선언예배: 매 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이 개혁 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4:50분 청년예배 오후 3:10-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4:50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1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화-토) 금요기도회: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공요양회 기도회: 매월(목요일) 오후 7:30</p> <p>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6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4월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7: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대학교 교수 2. 김마누엘 신학대학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사망의 잠을 자지 않으려면?

지난 3월 16일 오후에 21세의 로버트 애런 롱이라는 백인청년 이 애틀랜타 근교 아로마 데라 피 스톤 2군데서 총으로 8명을 죽였는데 4명이 한인여성이었다.

리할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이렇게 뜻밖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고 했습니다.

필박을 받아 죽을 고비고비를 여러 번 넘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여 평안을 가졌습니 다.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뒤후 3:1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온 세상이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에 닢과 같이 임하듯이(눅 21:34), 인생의 죽음도 이렇게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닢과 같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에는 다윗이 가진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습니다(시13:3).

성도가 다급한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때, 그 성도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가게는 여주인 74세 박모 여인과 69세, 63세, 51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나이면 이제 미국 와서 고생하고 남은 생은 자녀들과 평안하게 살 꿈을 계획하며 인생을 마무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다윗은 사울왕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롬8:32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 다. 왕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낮게 하였고 네 수한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3년을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중세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응답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52년간을 기도해서 믿음이 없는 친구를 구원한 기도응답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가장 귀한 것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서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는데, 우리는 우리의 때에 달라고 조급하게 굴다가 응답이 더디면 그만 좌절하고 낙심하여 기도할 힘을 잃고 원망이 빠집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롬8:28)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법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골4:2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성도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으려면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중에 감사기도가 으뜸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와 찬송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마귀가 주는 사망의 잠을 물리치고 깨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서도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23:4-5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17세에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 13년을 연단 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창 45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롭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애굽의 총리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여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 다. 그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했습니다. 두 시간의 새벽 노동을 마치고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식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공사장의 거친 인부들에게 온갖 욕설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항상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 다.

훗날 그가 수상이 되자,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들이 그 힘든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메이저 수상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삶의 스승으로 여겼습니 다. 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위에 낙심하며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songpkak@hotmail.com



UMC 한인총회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줌 화상으로 진행됐다.

4개 연대기관 대표자 모임 결성 UMC한인총회, 임원선출안하고 임시기관으로

2021년 미연합감리교(UMC) 한인총회(총회장 류재덕 목사)가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빌 1:6)"이라는 주제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줌 화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총회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취소된 바 있다. 총회는 3일간 매일 새 주제를 정해 진행했다. 13일은 '만남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개회 예배, 안수 축하 및 은퇴 찬하, 만남과 나눔의 시간이 진행됐

으며, 14일은 '소통과 비전(한인총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교단 현황 보고, 연대 기관 보고, Q&A, 연대 기관별 모임 및 토의, 추모예배가 진행됐다.

15일은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주제로 정기총회가 진행돼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을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임시기관에 그 역할을 맡기기로 결의했다. 동시에 이슈로 교단분리의 과정에 있는 연합감리교내 한인교회들의 사정과 고민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는 한인교회 그룹(한인교회총연합회), 타인종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룹(타인종목회자협의회), 여성목회자 그룹(여교역자협의회), 차세대 그룹(NEXUS) 등 크게 4가지 그룹이 있다. (10면으로 계속)



뉴욕가정상담소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제43기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뉴욕가정상담소 제43기 봉사자 교육 시작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돕는 뉴욕가정상담소가 지난 14일 제43기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5주 과정의 교육 과정을 마친 모든 봉사자들은 뉴욕가정상담소의 핫라인 봉사자로, 주말과 상담소 운영시간 이후의 시간에 걸려오는 핫라인 전화 상담 및 신속한 피해자 서비스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가을 42기 교육을 처음 온라인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끝내, 이번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5월 11일까지 5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상담소 측은 재교육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락처: (718)460-3800

강의내용은 △가정폭력의 이해 △법적 대응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제도 △가정상담기법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Community Conversation 뉴욕가정상담소, 4월 30일

한편 뉴욕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 Community Conversation

Advertisement for FAMILI STUDY at NYU Langone Health. Includes text about research on diet, environment, and health,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ee Choi, MS, RD.

최근 1만 달러 기부금 받아 남가주 한인 음악교습 단체 '러브인뮤직'

음악을 통한 인종갈등 해소 를 목적으로 흑인과 라틴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한인 비영리 음악교습단체 '러브인뮤직'(Love In Music·회장 박관일)은 최근 '2020 소사이어티 오브 SPS'(이하 SPS)로부터 1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Forward' 상을 수상했다. '페이 잇 포워드'는 누군가의 호의를 받고 나면 호의를 베풀어준 이에게 되갚는(pay back)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갚는, 선의는 되갚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는 메시지다. 러브인뮤직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이번 수상에 기여한 주인공은 웨슬리 칼리지 1학년인 셸리시 이(한글명 이하늘) 양이다. 셸리시폴 졸업생인 이 양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러브인뮤직을 통해 가디나 지역에서 음악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하며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 SPS에 러브인뮤직을 추천한 것이다.

SPS는 뉴햄프셔 주의 유명 사립고등학교 세인트폴 출신 동문들이 만든 단체다. 1856년 문을 연 세인트폴 교고는 세계적인 정·재계 거물을 다수 배출한 명문이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신문왕'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이 양은 "화합을 목표로 14년 동안 꾸준

히 활동해 온 러브인뮤직이 주류사회 단체인 인정받은 것이 기쁘다"며 "한인들이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더욱 가깝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받은 기부금은 전액은 악기 구매와 정기 연주회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러브인뮤직은 지난 2007년 5월 창립 후 14년째 흑인과 히스패닉 등 타 커뮤니티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 악기지원 및 무료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교습 봉사자는 총 56명으로 모두 한인이다. 현재 수혜 어린이는 흑인과 히스패닉 어린이 62명. 이들은 바이올린·첼로·플루트·클라리넷·피아노 등 클래식 악기를 배우고 있다. 2008년부터는 매년 1회씩 정기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미주교계 기사판

# 국가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열린다

## 5월 6일(목) 저녁 7시 주님의영광교회



2021 국가기도의 날 연합기도회가 오는 5월 6일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국가기도의 날에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신승훈 목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랬던 미국이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크리스천들 숫자가 줄어들고 요상한 법들이 통과되고 있다”며 “기독교역사에서 마귀는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로마 유럽 미국 한국을 공격했다. 이는 기독교가 꽃을 피운 나라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 받았다. 국가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순영 목사는 “한인교단들과 지역교회협의회들이 평등법 저지를 비롯한 국가와 민족을

또한 신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 제사장 국가로 사명 감당하는 국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교회 지역사회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새 회장에 김명전 굿TV 대표이사

##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 제 25차 정기총회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회장 한용길 CBS사장) 제 25차 총회 및 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LA 다운타운에 있는 인터컨티넨탈호텔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현 회장인 김명전 굿TV 대표이사가 회장을 연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김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WAKB 한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정부와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고전 2:10)란 주제로 코로나 시대 이후의 WCBA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 이번 대회는 13일 저녁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5일엔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본 협회 부회장인 김명전 굿TV 대표이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김 회장은 “다음세대들이 큰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강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라며 “회원사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세계한인방송협회(WCBA) 총회를 ‘한국의 혼을 심어 한류의 꽃을 피운 하나님인간방송’ 주제로 열렸다. 이날 60여 한인방송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회는 지난 해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이날 열렸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미뤄진 현안을 처리하는 한편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영훈 목사(WCBA 이사장)가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가 환영사했으며 한용길 장로(WCBA 회장)가 인사말을 전하고 영감 연합회원과 미셀박스틸 연방하원의원의 축사를 남철우 목사가 대독했으며 정세근 장로(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박경재 LA총영사와 에드워드구 LA평통회장이 축사했다.

WCBA 25년사 헌정식을 가졌는데 주준서 목사(25주년 발간위원장)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영훈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한기형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 한인가정상담소 트라우마 힐링 컨퍼런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지난 17일 전미 한인정신건강 컨퍼런스 ‘트라우마 그리고 힐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번 사랑을 통해 행복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선택강의는 세션 1의 ‘상처 알기’, 세션 2의 ‘상처치유하기’를 주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중 화상 컨퍼런스로 미전역 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한인들이 아시아 증오 범죄 영향으로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컨퍼런스는 주제 강연의 선택 강의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주제 강연은 정신과 전문의로 40여 년간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져온 수잔 정 박사가 맡았다. 정 박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주제로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변화하고 극복하기에 이르는 방법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했다.

선택강의 강연자로 나선 한인가정상담소 제니퍼 오 부소장은 “트라우마는 안전감을 파괴시킨다. 트라우마가 남긴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는 없기에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소장은 “참석자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아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왔다”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전미 한인들을 위한 행사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홍보팀장 이미리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기쁜우리교회 장학생 모집

[서부]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본주소지 혹은 학교가 남가주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외국 또는 타주에서 남가주 내에 있는 2년제 대학과정에 있는 학생, 일반대학생, PK&MK, 신학생이다. 신청방법은 본 교회 홈페이지(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안내를 받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1@joyfulccc.org로 보내거나 우편(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ity Church P.O.Box 270, Glendale, CA 91209)로 5월 31일까지 보내면 된다. 선발결과 발표는 7월 25일 예정.

▲문의: scholarship2021@joyfulccc.org

### 담임목사 청빙

[서부]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Sacramento)에 위치한 방주신교회(PCA)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과 함께 복음전도 사역을 실천하며 개혁신학 교리로 방주신앙공동체를 이끌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PCA 교단 헌법을 따르며 PCA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보수 장로교단 신학대학원(M. Div) 졸업자 △장로교단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교단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했으나 현재 개혁주의 교단 교회에서 시무 중인 자 △목사안수 받은 지 5년 이상, 5년 이상 풀타임 이민목회 중 3년 이상 이민 담임목회 경력 있는 자(단 교구나 교구에 준하는 공동체를 관리한 부목사/3년 경력도 동등하게 인정)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자다. 제출서류는 △교회홈페이지(arkmissionchurch.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청빙지원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모든 파일은 이메일과 PDF파일) △학부 및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와 목사안수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월 내 2편의 설교(MP 4파일이나 웹사이트 링크) △최근 6개월내 찍은 가족사진 △본인이 존경하는 목사님 추천서 1통과 현재 시무하시는 교회 장로추천서 1통(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이메일을 보냄)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6월 15일까지

▲문의: AMC.Calling.Committee@gmail.com

### 청소년센터 슬기로운 부모생활 세미나

[동부]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최하는 “온라인시대 슬기로운 부모생활” 세미나가 5월 2일(주일) 오후 4시 열린다. 강사는 현미숙 박사로 전 한국 해군전문상담원, 뉴욕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 내용은 △중시대에 강의하는 교수로서 경험과 상담사례 소개 △“뭣이 중한디?” 중시대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 △스폰만 잡고 있는 아이와 화내고 있는 부모-나의 불안관리 △스마트폰 사용 지도원리. 줌링크 ID: 992 8574 8265 PassCode ayc.

▲문의: (718)279-1313

### 패밀리터치 사별가정 회복모임

[동부]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여정” 사별가정 회복모임이 4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1주간에 걸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다.

▲문의: (201)242-4422

2021 국가기도의 날 연합기도회가 오는 5월 6일(목) 저녁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다.

‘Lord pour out your Love, Life and Liberty’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님의영광교회가 공동주관,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 자매, 순무브먼트가 공동주최로 갖게 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대표회장)는 “미국에 47년 가까이 살면서 부러운 것이 나라에서 정한 국가기도의 날이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기도하길 원한다. 링컨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였다”며 “미의회에서 33대 트루먼대통령 때 국가기도의 날을 결정하고 올해 70번째 국가기도의 날로 지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송 목사는 “해마다 기도의 날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왔다. 특별히 레이건대통령 때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결정됐다.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기도해야 문제해결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며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월서연합감리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예배에서 구진모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함께 섬기는 교회가 부흥한다

## 월서연합감리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예배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구진모 목사) 설립 42주년 기념예배가 11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이날 예배는 박성수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며 구진모 목사가 ‘함께 섬기는 교회(막2:1-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구진모 목사는 중풍병에 걸린 환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 보내 병 고침을 받은 본문내용을 설명하며 “화분하나도 정성들여 관리 잘하면 오래간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은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고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봉사하고 일하는 교인들의 모습으로 분주할 때”라며 “내 자신이 교회에 대해 관심가지고 정성 다해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는 부흥한다”고 말했다.

구 목사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네 명의 친구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병 고침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모든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본문의 친구들도 환자를 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 고침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 주변의 형제 친구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이다. 둘째, 협동정신 가지고 섬기고 봉사했다. 하나님의 일은 조화를 이뤄서 해야 한다. 셋째, 봉사는 인내하며 해야 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오면 그것을 능히 하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된다. 주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구진모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9면에서 계속>

각 그룹에 따라 동성애를 보는 시각과 교단분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분리와 관련된 교단 총회의 결정이 되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특히 이들이 경기부양 수표 등 지원금을 받을 때를 노려서 사기를 친다”고 말했다.

2019년은 6100건의 사기전화가 신고됐으며 2020년에는 약간 감소했다. FTC 소비자 비즈니스 교육부의 앤드류 존슨 부장은 “사기사례를 접할 때마다 FTC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 사례가 접수돼야 새로운 사기 수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기사례 신고: www.ftc.gov

(정리: 박준호 기자)

# 코로나사기 유행... 이민자, 저소득층 피해속출

## FTC 몬타나 지부, EMS와 인터넷 기자회견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기꾼들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을 노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몬타나 지부는 지난 3월 24일 에스니미디어서비스(EMS)와 인터넷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척 하워드 FTC 북서부 지역 오피스 국장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및 경기부양 수표 사기 신고가 40만건 이상 접수됐다”며 “사기사례 중 3분의 2는 개인정보 유출이며, 소비자 피해액은 3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지원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도 유행하며, 사기당한 사람에게 또 사기를 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관련 사기는 백신 설문조사 사기다.

하워드 국장은 “예를 들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면 선물을 준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상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나 크레딧 카드 정보를 빼간다”고 말하고 “진짜 설문조사기관은 크레딧 카드 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 난민들을 노리는 사기도 유행중이다.

네이버워크 몬타나의 한나 테스터 주택네트워크 매니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는 도심난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겼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모기지나 렌트비를 감당못해 렌트비가 싼 시골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사기꾼의 표적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기꾼들은 크레딧이그리스트 등 인터넷 장터란에 집주인을 가장해서 주택을 싼값에 임대한다고 광고하고, 세입자에게 2개월치 세큐리티 디포짓을 받아낸다. 세입자들은 나중에 그런 주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사기는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 개인보호장비(PPE) 사기, 코로나로 실직한 실업자를 위한 사기성 직업훈련으로 위장한 후 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이 있다.

몬타나 법률서비스협회의 베스 헤이즈 소비보호 담당 변호사는 “이미 가난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일수록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특히 이들이 경기부양 수표 등 지원금을 받을 때를 노려서 사기를 친다”고 말했다.

2019년은 6100건의 사기전화 신고됐으며 2020년에는 약간 감소했다. FTC 소비자 비즈니스 교육부의 앤드류 존슨 부장은 “사기사례를 접할 때마다 FTC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 사례가 접수돼야 새로운 사기 수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기사례 신고: www.ftc.gov

(정리: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트라우마 힐링 컨퍼런스가 줌으로 열렸다



## 평가 '극과 극' ...교회-시민들 인식 차 뚜렷

장신대, 한국교회 코로나 대응 교인·비개신교인·목회자 설문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목회자와 비개신교인 사이의 인식차가 극명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잘 협조하나'를 묻는 말에 목회자는 91.0%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비개신교인은 단지 13.2%만 긍정 평가했다. 6배 넘는 격차다. '교회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나'란 질문에 목회자는 79.7%가 긍정했지만 비개신교인은 12.0%만 긍정했고 84.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장로회신학대는 14일 서울 광진구 교내 소양 주기철기념관에서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장신대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목회자 300명 등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은 각각 패널활용 온라인 조사로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의 표본오차를 보였으며, 목회자는 리스트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로 편의 추출 방식을 택했다.

교회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믿지 않는 이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교회는 예배/모임 자제, 감염수칙 준수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나'란 질문에 비개신교인의 43.9%는 '전혀 그렇지 않다', 40.2%는 '별로 그렇지 않다', 11.8%는 '약간 그렇다', 1.4%만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부정 응답이 84.1%나 된다. 반면 목회자는 52.7%가 '매우 그렇다', 38.3%가 '약간 그렇다'이고 부정 응답은 9.0%였다. 비개신교인 답변과 정반대 양태다. 참고로 개신교인은 62.7%가 긍정, 35.9%가 부정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교회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나'란 질문에 목회자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쳐 79.7%가 긍정했으나 비개신교인은 12.0%만 긍정했다. 개신교인은 58.6%가 긍정했고, 39.7%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잘 이해하고 있나'란 물음엔 목회자 66.3%가 긍정했지만 비개신교인은 역시 15.3%만 긍정했다. 비개신교인 43.8%는 '전혀 그렇지 않다', 37.4%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비개신교인은 코로나19 관련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긍정적이라 생각이었다.

방역 일탈로 언론에 비친 개신교 교회 모습을 두고 중복 응답을 포함해 비개신교인 75.6%

## 한기총, 내홍 봉합 물꼬 텃다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 간담회...임시총회 소집 요청

조직 정상화를 위한 대표회장 선출 방안과 시기 등을 두고 최근 내부 갈등을 빚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텃다.

14일 한기총에 따르면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한기총 소속 28개 회원 교단·단체장이 모인 한기총교단단체장협의회(한교협)의 김자연 김창수 박종선 김송수 목사, 비상대책위원회 엄기호 김정환 목사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교협 등이 사무국에 접수한 임시총회 개최 요청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돼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가 교회가 '이기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비개신교인 55.2%는 '비대면 예배의 활성화'를 꼽았지만 목회자의 70.3%는 '사회와의 적극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발표회에선 박정관 장신대 교수가 코로나19 국내 보도와 외국 보도를 비교해 분석했으며,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과 변상욱 YTN 앵커 등이 총평했다. 이들은 비개신교인들이 교회의 최종 선교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인식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 발표회를 주도한 장신대 전 총장 임성빈 교수는 "교회와 사회의 인식 차이를 발견한 1차 중간보고이며, 앞으로 건설적 대안을 찾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기총, 내홍 봉합 물꼬 텃다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 간담회...임시총회 소집 요청

참석자들은 김 직무대행의 전반적인 상황 설명에 공감을 표했고, 김 직무대행이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자 간의 뜻을 모은 결의서도 만들었다. 결의서에는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한기총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김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임시총회 개최 여부, 일정과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과 김 직무대행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조만간 법원에서 임시총회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에는 임시총회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요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이 소장도 "코로나19로 교회와 가정, 학교의 경계가 무너졌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신앙교육의 주 무대를 교회학교에서 가정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앙단계별 교육과정과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세대 간 교육과정을 결합한 제3의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신형섭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돌중 하나를 택해 균형을 잃기보다 상호보완적 교육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을 잇고 부모와 자녀 세대를 한데 묶는 '올라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를 교회교육 정상화로 상징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찾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탈북민, 구제대상 아닌 하나님나라 동행자"

2021 탈북민교회 연구 세미나, 김의혁 교수 발제

이미 우리 곁에 있는 3만여명의 탈북민을 구제나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배려하며 한국교회 내에서부터 진정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대표회장 강보형 목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총회장립100주년기념관 크로스로드 세미나실에서 '2021 탈북민교회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는 '탈북민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한국교회 내 북한이탈민 부서 사역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의혁 송실대

교수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한국교회의 통일 사역 전반을 되돌아보게 했다"며 "현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위해 부산 수영로교회, 서울 남서울은성교회 영락교회 은누리교회, 성남 할렐루야교회, 대전 대흥침례교회, 안산동산교회 등 7개 교회 내 탈북민 부서를 조사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한국교회는 그동안 탈북민을 구제의 대상

## 중·고교생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개신교'

예장합동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개신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탈종교 현상도 드러나 한국교회의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대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은 15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열린 총회 전국기독교학생연례회(SCE) '3355 세움' 발대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8일~9월 14일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많이 믿는 종교는 개신교(20.5%) 불교(5.4%) 가톨릭교(4.9%) 기타 종교(1.3%) 순이었다. 신뢰도 역시 개신교가 18.6%로 가장 높았다. 불교는 12.4%, 가톨릭교는 5.8%였다.

다만 '종교가 없다'고 답한 학생이 67.9%로 높게 나타났고, '신뢰하는 종교가 없다'는 답변도 49.7%에 달했다. 교회를 다녔지만 떠난 학생은 27.2%로,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46.3%)였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도 드러났다. 코로나19 이전엔 개신교 학생 중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72.1%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엔 18.2%로 크게 줄었

다.

TF팀 책임연구원 노재경 목사는 "성인 대상 조사에서 무종교 비율이 54.1%였던 점을 고려하면 탈종교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신앙성향은 보수, 정치는 진보 28.5%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설문조사...한국교회개혁 기대

성경의 무오성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정치 성향은 진보적인 교인이 전체 교인 4명 중 1명 이상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개혁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영주 목사)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구원에서 '2020 개신교인 미디어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선 교회를 '정치적 보수'로만 보는데 교인들도 정치적, 신앙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설문 응답자의 정치·신앙 성향을 교차 분석한 결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예장합동 SCE는 이날 발대식에서 학생기도운동 '3355 세움'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에 9개 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 위원장에게 깃발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스콜처치를 세우는 등 학생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소강석 목사는 "SCE 리더와 한국교회의 헌신으로 진행되는 이번 운동이 한국교회의 절대적 희망인 청소년의 부흥을 이끄는 촉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적이라고 답한 교인 비중이 28.5%를 차지했다. 신앙과 정치 성향 모두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교인은 34.5%, 신앙·정치 진보 교인은 19.4%, 신앙 진보·정치 보수 성향은 17.6%였다.

박 교수는 '신앙 보수·정치 진보' 집단의 교인들이 향후 개신교 개혁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40~50대 비중(53.0%)이 절반 넘는 이 집단은 한국교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박 교수는 "교회 내부의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이들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신학적 보수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20대 교인들이 진화론, 낙태, 공산주의, 동성애 등을 접할 때 목회자나 기독교 지인보다 매스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반교연은 오 시장에게 동성애 혐오 정책을 중지하고 관련 조식을 폐쇄할 것뿐 아니라 서울광장 내 퀴어행사(동성애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퀴어행사를 반대한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동성애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의 신설을 권고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권고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 "서울시 동성애 옹호정책 오시장이 폐기해야"

334개 대학교수 3239명 참여 '동반교연' 성명

전국 334개 대학의 교수 3239명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조식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된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동반교연은 성명서에서 "박 전 시장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수식 가치

제3의 성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성(젠더)에 근거한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해 LGBTQ(동성애 유행) 등을 옹호했다"면서 "동성 간 성관계를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부시장 산하의 인권담당관과 시장 직속 여성가족정책실 주도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자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부도덕하고 사회적 폐해를

## 미얀마 한국선교사 철수 권고

KWMA, 선교사 위한 긴급 간담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폭력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선교사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세계선교사협의회(KWMA)는 선교사 철수를 권고했다.

KWMA는 14일 서울 동작구 CTS기독교TV에서 'KWMA 미얀마 현황 및 선교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대

흥 KWMA 사무총장은 "미얀마 사태가 심각해져 선교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교사 파송단체와 교회는 미얀마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하루라도 빨리 선교사들을 일시 귀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인권단체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14일 현재 미얀마 군정의 폭력으로 715명이 사망했다. 미얀마인민선교사협의회(미선회) 회장은 A선교사는 "군경이 민간인 집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열어 시위와 관련된 사진을 찾거나 SNS 메시지를 검열하고 있다. 우리 선교사 중에도 이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일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올렸다. 여행은 취소·연기하고 미얀마에 체류 중인 국민은 중요한 응무가 아니면 철수해 달라는 내용이다. 호주 노르웨이 독일 등도 출국 또는 철수를 권고했고 미국과 영국은 대사관 비필수 인력 등에 탈북민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지향적 접근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선교사들은 사역지 철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선회에 따르

면 개별파송을 포함해 30여개 교단·선교단체가 미얀마에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는 223가정, 402명이다. 부부선교사는 358명이고 나머지는 1인 선교사다. 이중 군부 쿠데타와 안식년 등을 이유로 한국에 온 선교사는 부부선교사 191명, 1인 선교사 20명 등 총 211명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철수한 선교사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선교사가 각각 12명이다. 167명은 미얀마에 있다.

파송단체의 철수권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미얀마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는 지난달 17일, 31일 두 차례 철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미얀마 파송 선교사 39가정(75명) 중 절반이 넘는 22가정(36명)이 여전히 미얀마에 머물고 있다. 이들이 철수를 꺼리는 이유는 "선교사는 끝까지 사역지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귀국 후 후원 중단이나 불투명한 사역지 복귀 여부도 철수를 막고 있다.

강 총장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해도 미얀마 사역을 이어가도록 선교본부나 파송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38)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 제 8장 우울증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요소

△기도 △성경 읽기와 묵상 △모든 문제를 주께 드리기 △하나님의 영광과 용서에 대한 믿음 가지기 △자신과 모든 사람 용서하기 △긍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사람 사귀기 △웃기, 유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꿈과 인생에 있어서의 징조 이해하기 △찬양과 경배 예배 △복음

성가 부르기, 혹은 주님의 말씀 듣기 △영적 영감을 주는 책 읽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 찾기 △시 쓰기 △과거에 머물지 않기 △삼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사실 알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다르게 생각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가족의 지원 받기 △예수님이 우울증의 치료

제라는 점 알기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가지기 △전문적인 상담 △항우울제 복용 △영적 영감을 주는 음악 △내 자녀들의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선언하기 △일기 쓰기 △좋아하는 직업 찾기 △학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초대  
여러분은 삶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오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성경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신다면 신약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를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려면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찬송

게 해주시고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도 더 알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로

### 기도, 성경 읽기와 묵상, 모든 문제를 주께 드리기 하나님의 영광과 용서에 대한 믿음 갖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

을 부르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며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yonghui.mcdonald@gmail.com (끝)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 원 스토리 6강 / 족보, 바벨탑(창 10, 11장)

#### 족보, 바벨탑

성경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지루한 이름들을 나열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어떤 내용도 빠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계22:18,19).

#### 족보 이야기

족보는 성경에서 내용 전개에 중요한 전환점에 등장합니다. 족보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족보 뒤의 내용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족보 중에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구약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신약성경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구약성경 역사서 전체를 정리하고 이제 구약의 시가서와 선지서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는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고(창7:23)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이에 등장하여 그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족보들은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성경의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들의 족보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족보의 이름 나열에 묶이지 말고 그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가인 계열의 자손들이 세상에서는 힘있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출생과 죽음이 기록되어있지 않고 셋의 자손들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였지만 그들의 출생과 죽음이 성경 족보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나뉘고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한 무리와 하나님의 은혜없이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전부를 걸고 사는 다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모든 자손과 셋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의 뜻하는 대로 살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셋의 자손 중에서 노아를 택하시고(창10:1) 노아와 그의 아들들 중에서 셈을 택하시고(창11:10) 셈의 아들들(창10:22) 중에서 아르박삭을 택

던 가나안 족속들(창10:6, 15-18) 또한 해안에 거하며 강한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었던 블레셋이 있습니다(창10:14). 그리고 네피림과 같이 세상에서 영웅으로 힘을 자랑했던 니므롯과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세력으로 바벨론과 앗수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앗수르(창10:10-12/참고. 미5:6/왕하17장)와 남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창10:10/왕하25장/대하36장/렘52장)의 나라들이 모두 함의 후손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족속

행7:2-4).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불러내실 것입니다(사48:20/렘51:45/계18:4).

세상의 물질과 힘 그리고 향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닌 더 좁은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 니므롯의 나라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 안에서 함의 자손들의 삶은 힘과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이미 홍수심판 이전에 용사로 명성을 가진 네피림이 등장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다면(창6:1-7) 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대적자’의 뜻을 가진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등장합니다(창10:8,9). 좋은 뜻으로 ‘사냥꾼’, ‘용사’이지만 사실은 ‘폭군’, ‘암제자’의 뜻으로 짐승뿐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듯 전쟁을 즐기는 침략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

행7:2-4).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불러내실 것입니다(사48:20/렘51:45/계18:4).

#### 바벨탑

성경은 종종 내용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나 어휘, 문장, 이야기 등을 사용해 그 중심내용을 강조합니다(참고. 시8편). 그와 같이 창세기 10장과 11장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넣어 성경은 물심판 이후 또다시 드러난 인간의 죄 그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사43:2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시다(사43:7). 그러나 사탄 편지에 모인 이들은 ‘성음과 탐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11:4)고 선포합니다.

####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난 것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남의 종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무명하고 자이나 유명한 자요 작은 자 같으나 살아 있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것입니다(고후6:1-10).

####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하 없는 수고를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죄인 것입니다(고전10:31).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롬12:2).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창17:5)이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창32:27,28)인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 헌신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야만 합니다(시115: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시다(요6:38).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저주였지만 인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요12:23).

#### 흠어짐을 면하자

다시 반복하지만 무엇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흠어짐을 원하지 않던 자들을 흠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충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행2장, 4장).

hfamilya@gmail.com

### 족보는 성경에서 내용 전개에 중요한 전환점에 등장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하며 성경의 맥 짚어줘

하시고(창11:12) 아르박삭의 자손들 중에서 데라를 택하시고(창11:27) 마침내 데라의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창12:1/참고. 행7:2-4).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구별된 것입니다(롬8:28-30).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전합니다(롬9:14-16/참고. 롬9장 전체).

#### 함의 후손들

노아에게 제주를 받은 함과 그의 자손들은 네피림의 시대와 같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후에 남유다 아사왕 때에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세상을 공격하여 힘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구스(창10:6/대하14:9)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거부하며 마침내 10번의 재앙을 겪어야 했던 애굽을 뜻하는 미스라임(창10:6),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멸망하는 듯 했으나 남겨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

들은 바벨론(렘52장)과 앗수르(사10:5-7)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피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삿3:1-4).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사13:1-14:23, 21:1-10/렘50장, 51장/단2-8장), 앗수르(사14:24-27/요나서/나훔서), 애굽(사19장, 20장/렘46:1-26/겔29-32장), 구스(사18장, 20장), 블레셋(사14:28-32/렘47장/겔25:16,17) 모두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들의 상징인 바벨론은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예14:8, 16:19,20, 17:5, 18:2,10,14,15,2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은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자녀들을 먹이시고 기뻐하도록 하실 것입니다(사65장).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힘과 우상을 상징하는 그 땅 바벨론, 비옥한 풍요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것입니다(창12:1-3/참고.

님 앞에(창10:9) 선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의 나라(창10:10)’를 만들었는데 이는 ‘큰 성음’이었습시다(창10:12).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니므롯이 시작한 그 시날 땅(창10:10) 시날 편지에 모여(창11:2)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 셈의 후손들

셈에게도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함의 자손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내실 것이 그 그를 통해 믿음의 증표로 할례언약(창17:1-14)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신10:16/렘9:25,26/롬2:29)를 받을 영적 자녀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잠8:22,23/엨

다. 지금의 건축기술로도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도 세상의 어떤 탑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선포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교만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고 무익한 종의 자리(눅17:7-10)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애굽, 바벨론, 앗수르와 같이 잠시 세상을 호령하다 사라지는 존재를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시127:1).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는 것입니다(마11:23).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고전3:18)(마23:11,12).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들이니(잠8:22,23/엨







### 아르헨티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위에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는 4월 지나면서 가을 날씨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움이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로 변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들의 나무 잎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지만 계절은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새벽이 오듯이 코로나도 곧 종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소원합니다.

#### 아르헨티나 현재상황

아르헨티나는 계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2,039명이며,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접어들면서 재 확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체 확진자의 숫자가 2,450,068명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제 2의 코로나 감염의 확산으로 정부는 이웃나라와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통행증을 얻어야 이동할 수 있으며, 통행금지를 저녁 10시-새벽 6시까지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강력한 통제를 하지 않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4월 말까지 연장발표를 하였습니다. 강력한 통제를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면 견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백신을 들여와서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직까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러시아산 스퍼트닉 V 백신, 중국산 시노팜 백신과 아스트라제니카 백신 500만개가 들어와서 의료진들과 군, 경찰과 교사들과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1차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스텝 파트리시아의 어머니가 지난 주에 러시아 산 스퍼트닉 V 백신 주사를 맞았으나 병원에 입원한지 4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의사 이야기로는 부작용으로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산의 스퍼트 닉 V 백신과 중국의 시노팜 백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 있는 책임과 행동과 자제를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마스크 착용과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센터의 스텝과 교사들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믿음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스텝 1명이 3월 8일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 다음날 교사들과 스텝 모임에서 2명의 교사들이 감염되고 또한 가족들까지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3월 9일에 스텝들과 대면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도 1주일 자가격리를 하었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1차 감염되었던 스텝 마르셀라의 증상이 악화되어 3월 17일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지난 3월 27일에

퇴원하여 집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감염 이후에 고통이 심하고 회복 후에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하심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 사역 내용

##### 1. 어린이 사역

저의 센터에서 하던 아동사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는 모든 위생과 방역을 한 상태에서 30명 이내의 모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대면 사역은 전체 아동들의 그룹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상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사역으로는 교사 교육과 양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아동들에게 학용품 전달하고, 미혼모 가정, 노약자 정과 코로나감염 가정들에게

긴급 식량지원을 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에 비닐 피할 수 있는 양철지붕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2. 포루모사 위치족 인디오 사역  
포루모사의 라스 로미파의 위치족 사역은 코로나 유입을 억제하는 주정부가 가장 강력한 1단계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초부터 시작된 통제와 이동의 제한과 상업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포루모사 사역지의 교회들과 목회자, 지도자 사역을 원하지만 주정부의 통행제한으로 선교현장을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사역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 3. 목회자 지도자 사역

목회자 지도자 사역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저희가 가지 않아도 멀리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고 불안정하고, 현지인들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사양이 낮아서 자주 끊어지고 음질도 좋지 않아서 사역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싼 인터넷 비용과 핸드폰을 충전해서 사용함으로써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 4. 아가페교회

부웨노스 시에 개척한 아가페교회는 가정수가 많지 않지만 매주 일요일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형제가 가정문제로 이혼의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꾸준히 상담하고 기도하고 권면함으로써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가페교회의 성도는 아르헨티나 성도보다는 볼리비아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볼리비아인들 약 200만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고향을 떠나서 아르헨티나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특히 한국교민들의 공장에서 일을 배운 후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가내공장과 가게들을 오픈하여 장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 5. 현지 협력교회의 철거

지난 2013년부터 아동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던 Los Cielos Abiertos(열린천국교회)가 땅 주인과의 임대계약이 끝나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임대료가 밀림으로서 계약이 만기가 되

었습니다. 그러자 땅 주인은 땅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더 이상 임대 계약을 안함으로서 결국 교회의 가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의 현지 교회 장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급하게 장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장소와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6. 코로나 위생용품 지원 행사

아르헨티나는 제 2차 코로나의 감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1일 역대 최고로 20,78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 3일에 코로나 예방과 방역을 위해서 200가정에게 위생용품(알코올 젤, 마스크, 방역비누, 소독약, 청결제, 치약, 치솔)을 전달하였습니다.

##### 기도제목

1.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모든 사역과 가정과 선교현장에 넘치도록
  2. 포루모사의 5개의 지교회(아가페, 뉴아가페, 영광과 평화, 쏘세차(부곡) 제마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3. CDP 아동 사역을 위한 장소(임대 또는 구입)을 위해서
  4. 스텝과 교사들과 가정들이 코로나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5.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지도자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6. 부웨노스에 개척중인 아가페 현지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7. 선교사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 아르헨티나 장영호, 백미영 선교사 드림  
luis-chang@hanmail.net

### 선교 편지

#### 필리핀

##### 1. 계속되는 코로나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만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마다 봉쇄를 심하게 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코로나 지원금과 식료품을 나눠주었습니다. 반면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 곳간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무디어져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0여명이 넘습니다.

무더운 나라 필리핀에서 바깥 외출을 할 때 마스크만 사용해도 덥고, 숨이 차는데 얼굴을 다 덮는 투명 플라스틱 상대방과 대화도 쉽지 않고 금방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 운전자 1명이 운전하러

라도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가는 교통경찰들의 딱지(범칙금)로 서민들만 힘들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해도, 얼굴에 플라스틱 커버를 안 해도, 차가 좋으면 그냥 통과하고, 오토바이나 낡은 차는 범칙금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저도 2번이나 범칙금을 냈습니다. 범칙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시내의 관공서

에 가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 일수록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외진 잠보앙가에서 사역할 때 늘 신실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학교 정문 공사

필리핀은 도로가 새로 만들어질 때 공동적으로 도로높이가 땅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로의 높이를 맞추다 보니 대체적으로 도로가 높아집니다. 2010년 새희망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학교 앞이 그냥 흙길로 비포장도로였고, 2015년에 2차선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졌고, 2019년에는 4차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로가 다시 확장되면서 그 도로가 1미터 넘게 올라가서 비만 내

리면 학교 입구가 수렁장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땅을 채워야 하는데 생각보다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산비탈 공사 당시 많은 흙이 나와서 35대 덤프트럭의 흙을 기증받을 수 있어 감사하였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안쪽까지 가로 10미터, 새로 90미터의 넓은 땅입니다. 지나 3개월 동안 학교의 땅을 메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판매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0.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101가지 조언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너무 많은 약속, 너무 많은 일들에 둘러싸여 친구, 가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서두름과 바쁨은 현대인들의 일상적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들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Little House on the Freeway'의 저자 팀 키멜 박사(Dr. Tim Kim mel)는 그의 저서에서 속도의 변화를 위한 조언을 제시하며,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과 가족만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적 통찰력과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 섹션으로 그의 책에 새로 업데이트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101가지 조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팀 키멜 박사는 현재 'Family matters'의 설립자인 동시에 책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일 동안 포용해주기(습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21일이라고 한다) 8)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TV 전원을 아예 뽑아놓기 9)가족과 함께 패스트푸드 아닌 외식하기 10)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11)함께 휴가를 계획하기 12)함께 휴가가 가기 13)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14)예배시간에 가족이 함께 앉기 15)자녀의 차를 세차하고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기 16)직장에서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야구경기 가기 17)가족과 함께 주말오후에 도서관에 가기 18)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19)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편지 쓰기 20)배우자에게 주말에 친구와 함께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21)가족과 함께 캠핑가기 22)한 주간 동안 평소 때보다 한 시간 일찍 자기 23)일 년 동안 한 달에 한번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아침 식사하기 24)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승진을 거부하기 25)안전재널트를 항상 매기 26)건강검진 받기 27)매일

조금씩 한 달 동안 운동하기 28)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생명보험에 들기 29)사망 시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정계획을 유언 및 여러 중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놓기 30)배우자와 자녀 안전하도록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정비하고 튼튼해 주기 31)자동차의 경보기의 건전지를 바꾸기 32)집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기 33)자녀들의 선생님과 학부모 면담을 부부가

감사한 점에 대해 편지 써서 보내기 44)쇼핑을 마음껏 하기. 하지만 하나도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기 45)한 달 동안 기도일기 쓰기.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 46)가족과 함께 번드리로 나가 별 구경하기. 자녀들에게 별자리를 설명해주고 우주에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하기 47)아내를 위해 얼굴 마사지, 매니큐어, 미용 등으로 한 턱 내기 48)자녀들에게 토요일 아침 TV 만화를 보는 대신에 맥도날드에 가거나 그라지세일 구경, 혹은 공원에 가기 49)자녀들에게 매일 학교에 물어보기(무엇을 배웠는지, 점심은 누구와 먹었는지) 50)가정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자녀에게 설명해주기 51)“내 차가 그리 나쁘지 않네”라고

을 돌려주기 60)짜증나게 하는 운전자에게 양보하되 소리를 지르거나 화내지 않기. 61)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지 않도록 노력하기 62)배우자나 친구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변명하지 않기 63)자동차에 크리스천 범퍼 스티커를 붙였다면 어울리게 운전하기 64)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공부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실천하기 65)이제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확인하기 66)부모를 공경하기로 다짐하기(설령 부모가 많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67)자녀를 치과 데려가거나 내가 병원에 갈 때 함께 가기 68)가족과 함께 제스트 놀이하기(주제는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 69)아내를 위해 설거지하기 70)쉬는 날 가족과 함께 집에 있

와 함께 놀아주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81)부도님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82)드라마 보지 않기 83)집안을 정리하기 84)일찍 출근해야 하는데도 밤늦게까지 TV를 본다면 습관을 바꾸기 85)불필요한 아침식사 약속을 하지 않기 86)선교사님들에게 정기적으로 편지하기 87)웃음을 정리해서 일년내내 안은 웃을 기부하기 88)교회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애용하기 89)제 삼 세계의 아이를 후원하기 90)자녀들이 받은 상장, 학교 프로젝트, 추억 등을 따로 정리해서 보관하기 91)선교사의 전기를 읽기 92)교회사역을 위해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드리기 93)유서에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적은 편지를 가족에게 보내기 94)가지고 있는 오래된 레코드나 테이프 CD 중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리기 95)방 하나를 꾸며 편한 의자를 놓고 의견충동 코너라고 정하기. 그리고 의견충동이 일어나면 그 코너에 가서 해결될 때까지 떠나지 않기 96)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에게 자기 좋아하는 음식메뉴를 고르도록 자유를 주기 97)가족과 함께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집을 방문하여 집안청소를 해주고 잔디를 깎아주기 98)옛 친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99)중요한 습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기(성경읽기, 기도, 가족과 시간보내기, 몸무게 빼기 등) 100)예산을 세우기 101)부부가 함께 부부성장 세미나 참석하기.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우리 삶속에 브레이크 거는 방법 가족만의 시간 중요성에 대해 성경적 통찰력과 원칙 제공

함께 가기 34)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기 35)토요일에 아내가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아이보 기 36)배우자에게 자신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37)퍼즐게임을 함께 하기(1000개 이상) 38)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함께 대화 나누기 39)자녀들에게 가장 의문 나는 질문을 할 기회를 주고 대답을 주던지 함께 대화를 나누기 40)집안에 수리해야 할 것은 마무리 짓기. 41)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주기 42)자녀들에게 첫 데이트 이야기 해주기 43)부모님께 특별히

자신에게 말하기 52)직장에서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기 53)가계도(Family Tree) 그리고 자녀들에게 조상에 대해 가르쳐주기 54)오래된 묘를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기 55)하루에 한 가지씩 “아니야”라고 거부하기(두 번씩 파이팅 향해) 56)프라이드 기간에 부적절한 장면이 나온 것에 대한 방송사에 항의편지 던지 함께 대화를 나누기 40)집안에 수리해야 할 것은 마무리 짓기. 41)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주기 42)자녀들에게 첫 데이트 이야기 해주기 43)부모님께 특별히

기 71)가족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 하기 72)가족과 함께 여가활동하기 73)아내에게 꽃 보내기 74)저녁시간에 가족과 함께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을 보기 75)일 년에 한 번은 배우자와 함께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주말을 보내기 76)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기(그들이 함께 있을 때) 77)국가보내고 세계가 국면에 문제에 대해 자녀들에게 묻고 의견 듣기 78)자녀들이 데이트 나갈 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기 79)조용한 토요일을 보내기(TV, 라디오, 음악, 잡담 없이) 80)어린 자녀

필리핀

(14면에서 계속)

한국이나 미국 같은 땅을 채우기 위해 큰 덤프트럭이 동원되고, 다음에는 포클레인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로더로 땅을 다지면 1주일 안에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포클레인 빌리는 비용을 알아보니 제가 외국인이고 선교사라 돈이 많다고 생각되어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요구해,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샴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포클레인과 로더가 할 일을 사람이 샴으로 대신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은 흠을 매울 때 큰 덤프트럭이 흠에 빠졌는데, 빠져 나오지 못해 다른 덤프트럭, 포클레인, 로더가 동원되어 시간이 많이 걸린 후야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마터면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잠을 자기에는 좀 위험하여 늦더라도 집에는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일을 할 때는 일꾼들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켜봐야 합니다. 안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건물들 지을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하는 것을 잘 지켜보지 않으면 일의 진전이 없지만 일당은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일을 시키면서도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쩔 수 없이 일꾼들이 일을 열심하게 됩니다.

3. 월다 여학생 죽음

2주 전에 저희 학교 1학년 여학생 월다가 푸투란 동네에서

떨어지는 코코넛(야자나무) 열매를 맞고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빨리 수술하지 못해 결국은 죽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선생들 6명이 월다 집을 방문하러 가다가 길이 너무 안 좋아 중간에서 공 선교사와 선생 한 명은

되돌아갔고, 저와 선생 5명이 계속 걸어가서 무덤까지 방문 하였습니다.

가난한 무슬림들은 생활의 여력이 안 되어 대부분 가족사진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행사한 사진을 찾아서 월다 어머니에게 사진 여러 장을 건네주고, 조의금도 전달해주었습니다. 월다 여학생이 9살이고 곧 있으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것이며 집에 장녀인데 슬픈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월다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울었는데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고, 월다가 죽은 지 일주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무슬림 장례의식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 가서 땅에 묻고 시신 주변으로 시멘트 무덤을 만들고 머리 부분에 굵은 나무를 파묻습니다. 월다 가정이 너무 가난한 어부집인데 여력이 안 되어 월다 시신 주변으로 나뭇가지를 동그렇게 감싸 주지만 하였습니다. 요즘은 태풍이 자주 오고 비가 내려 월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혀 쉽지 않고 곧 있어 태풍이 멈추고 비가 멈추면 그때 선생들과 다시 가서 도와주려 합니다. 몇 번이 월다에게 조의금을 보내주셨는데 다시 전달해 주려합니다.

오정운/공운자 선교사 ohngongtak@hanmail.net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with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도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양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교회, 충신교회.



특/별/기/고

Michael Smith(The Owner of Vantage Mobility) | 번역: 이준수 목사(남가주밀알 영성문화사역팀장)

장애인의 날 / 장애인 에티켓

4월 20일은 한국정부에서 기념하고 있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곳 남가주에서도 상당한 수의 한인 장애인들 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 에티켓'이란 글을 씁니다. 이 '장애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

장애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

장애인을 한번이라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두렵거나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눈은 어디를 응시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이런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장애인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가 어떤 장애를 가졌느냐가 아닌,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으로 이어진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에티켓을 제시한다.

1. 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차이점'을 보기 전에 먼저 '공통점'을 발견해야 한다.

타인과 공통점을 찾는 것은 그와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일단 공통된 것들을 먼저 발견한 후 차이점을 논해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와 그 밖의 손으로 작동하는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 사람이

당신과는 다르게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라.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는 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2. 장애인을 '피해자/희생자'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척추장애를 앓는 사람이 '척추장애 피해자'라 부르거나 뇌성마비 장애인을 '뇌성마비 희생자'라고 칭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인간성을 무시하는 일이다. 결코 드러난 장애만 강조함으로써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외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닌 장애를 견뎌내

고 극복한 사람으로 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

3. 장애인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긴다고 함부로 짐작하지 말아야 한다.

수많은 장애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 행복해하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어쩌다 그런 장애를 갖게 됐니? 참 안됐구나" 같은 동정에 찬 말투는 오

히려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4. 장애인과 눈높이를 같게 하라. 휠체어 장애인과 일반인 사

오니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5. 장애인을 외면하지 말고 그와 눈을 맞추어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의도치



차이점 보다 공통점 먼저 발견... 피해자/희생자 취급 금지 눈높이 맞추기, 능력 과소평가 말고 무조건 동정은 피해야

이의 키 차이는 부지불식간에 두 사람 사이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 장애인을 대할 땐 앉거나 허리를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다. 의자에 앉는 것도 휠체어 장애인과 모양새를 맞춘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일 것이다. 휠체어 장애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그를 아이 취급한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

않게 장애인에게 무례함을 범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없는 사람 대하듯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이며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무시를 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으니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8. 장애인이 당신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의 사람됨과 장애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존중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오해가 생기거나 기분 상해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다. 그

럴 경우 "내가 일부러 잘못하려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알지 못할까?" 하며 억울해하기 전에 여러 정황상 '그 사람으로선 충분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구나' 하며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장애인의 보호자가 아닌, 장애인 자신과 직접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신체장애로 인해 외모가 다르거나 언어가 불편할 경우 지적장애까지 있는 것으로 오해받아 본인 아니게 무시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장애인을 무시하고 보호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날 차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여 관계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장애인을 존중하려면 본인 자신과 직접 대화하며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

10. 구시대적 또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불구자'나 '휠체어 신세를 지다' 같은 말들은 오늘날 더 이상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휠체어 신세를 지다' 같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평생 휠체어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는 장애인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니 만큼 '휠체어 사용자'란 말이 훨씬 적합하다. '불구자'란 말도 아무 능력이 없는 딱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더 적절한 용어이다.

장애인을 대하는 데 있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대우받길 원하는 방식 그대로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다. 존중과 예의로써 대한다면 장애인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고마워할 것이다.

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를 18살에 깨달았다. 이 진리는 그가 80중반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의 신앙을 지탱했던 원동력이었다. 필자는 이런 꿈을 우리의 자녀들이 꾸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초를 말씀으로 다지게 되기를 기도한다. hlee0414@gmail.com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3면에서 계속> 그리고 쇠의 종아리가 있어도 결국 발가락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돌맹이 하나로 거대한 신상이 철저히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엇으로 기초로 세울 것인가? 세상의 문화와 왕국은 그 아무리 튼튼하게 건설해 놓아도 결국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고로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 바로 다니엘은 깨달았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는 무엇인가? 세상의 문화? 문명?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손대지 아니한 (즉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단2:45). 그것이 어찌 왕만을 위한 경고이겠는가? 필자는 이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다니엘이 듣고 크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그는 앞

으로의 삶이 결코 세상의 문화 변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천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다니엘이 변치 않는 믿음과 초지일관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브갓네살 왕의 꿈과 이를 해석하면서 얻었던 교훈이었다. 그렇다! 세상 문화는 오고 가

는 것, 문명과 유행은 오고 가며, 사람은 왔다가 가고, 국가는 세워지고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과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흔들리지 않게 나의 기초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 승리한 비결이요 바로 오늘 우리

Advertisement for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Features the seminary logo, contact information (www.rptseast.org), and a list of courses including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various fields like Theology, Ministry, and Education. Includes a section for '특 전' (Special Features) and '학교안내' (School Information).